

Sulwhasoo

Vol.54 January/February 2013





穿

雪花秀

빛 결 선

더 단단히 여미세요.

추운 겨울, 옷깃만 여미세요? 겨울의 칼바람을 직접 받는 피부를 먼저 여미어야 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찬 바람, 안과 밖의 급격한 온도 차이, 난방으로 인해 건조해진 실내... 이 모든 것이 피부를 나이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해가 바뀌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살 더 먹게 되었지만, 모공과 주름 그리고 탄력을 두루 다스려 주는 여민에센스와 함께 나이의 변화를 줄이세요. 피부의 밀도를 단단하게 여미 빛, 결, 선이 살아나는 2013년 새해를 기원합니다.

손그림과 손글씨 이규복



피부 속 밀도 인자를 활성화해
주는 영실 성분이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채워 주는
젊은 안티에이징 에센스
여민에센스





분홍, 매화를 품다

소녀티를 벗은 딸아이를 위해 어미가 손수 지어준 저고리의 색은 무엇이였을까.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망울을 틔우는 매화를 닮은 분홍빛이 아닐까. 분홍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빗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색, 그리고 어찌면 유일한 색이기 때문이리라.

피부 밀도를 잡아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을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연분홍 실크 저고리와 원단은 담연, 달향이라는 광주요.



바다의 분홍빛, 산호

바다의 보석으로 그 빛깔이 가장 고운 것을 꼽으라면 단연 산호다. 옅은 분홍에서부터 저녁노을을 닮은 혼색, 그리고 선명하고 화려한 홍색까지 다채로운 색을 지닌 산호는 그 고운 빛깔 덕분에 궁중과 반가의 여인들에게 귀히 대접을 받는 장신구로 거듭났다.

목단문산호쌍가락지와 학문양가락지 및 표지에 사용된 석류문양산호비녀와 불수문양산호비녀는 모두 서울무형문화재 옥장 제 37호 엄익평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표지의 매화문양산호뒤꽃이와 산호브로치, 실매는 모두 담연.

분홍색에 고운 생기가 담기다

Known as Seokjuk color, pink refers to toned-up light red near white, similar to the color of Dianthus chinensis. Yi Hwang said in his <Jinseonghapsipdocha>, a book that mentio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in, Yang and Five Elements and the Five Colors, that “Pink is light red in the middle of south and west.” This means it is the combination of red and white where red from the south meets white from the west in the middle. The pure Five Primary Colors (blue, white, red, black, and yellow) and the Five Toned Colors created by their combinations (pink, dark blue, grass green, sulphur yellow, and purple) symbolize Yin and Yang. For example, the Five Primary Colors mean men and the Five Toned Colors mean women. Each of the Five Toned Colors expresses the subtle beauty of women, but the most feminine color would be pink. This is why the refined color of pink is often found on women’s ornaments, including Norigae with pink knots, Binyeo with pink corals, and fabric dyed with the pink petals of safflower. Pink, the color desired by all women beyond time and place, contains the youth and refined vitality of women.

석죽색(石竹色)이라 불리는 분홍은 말 그대로 석죽(石竹), 패랭이꽃을 닮은 흰빛에 가까운 옅은 홍(紅)색이다. 이황은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를 언급한 저서 <진성학십도차>에서 ‘홍은 적백색으로 남방간색’이라 칭했다. 이는 적색과 흰색의 합(合)이라는 말로 오행 가운데 남방(南方)에 해당하는 적색과 서방(西方)에 해당하는 백색이 만났음을 이르고 있다. 순수한 빛깔의 오정색(청·백·적·흑·황)과 그 합이 만들어낸 오간색(홍·벽·녹·유황·자)은 각기 양과 음을 상징한다. 이를테면 오정색은 남자를, 오간색은 여자를 뜻한다. 이처럼 오간색은 저마다 은은한 여인의 미가 풍기지만, 그 중 으뜸으로 여성스러운 색을 고르라면 분홍이다. 이런 연유로 분홍 매듭이 정갈한 노리개, 산호로 멋을 낸 비녀, 홍화꽃잎으로 염색한 옷감 등 유독 여인의 단장을 위한 물건에서 분홍의 고운 빛깔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여성들의 워너비 컬러인 분홍에는 여인의 젊음과 고운 생기가 모두 담겨있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05), 담연(02-546-6464), 광주요(02-3446-4800)





미학자를 매료하다	한국미에 대한 깊은 사유, 삼불(三佛) 김원룡	06
집 안 단장	향기로운 기운을 들이다	08
몸단장	반짝반짝 빛나는	10
한국 문화 읽기	복주머니 Bok-Jumoney	12
피부 섬기기	얼굴 선과 눈매를 또렷하게 돌리다	14
옛살을 돌아보다	골무와 노리개에도 소망과 미를 담았던 여인들	18
격조 높은 삶	예지미로 새날을 열다	24
예지미로 새날을 열다	옛사람들의 새날맞이	26
어우러지다	일 년치 오복을 갖추다	28
살펴보다	새해의 선물, 달력 이야기	34
세밀하게 보다	조선의 궁, 그 문으로 들어서다	36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비우니까, 채워지더라, 아나운서 최윤영	44
월드 헤리티지	빛의 조각품을 계승하다, 생루이 크리스털	50
아트 클래스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	56
작가를 만나다	전통과의 통섭을 외치다	60
설화보감	산천을 품었으니 기운이 가득하다	66
설화수의 사계	가득히 눈이 쌓이다	72
국악기행	진도, 소리와 달빛에 가슴을 데다	76
설록다원	차, 떡을 말하다	82
미색보감	당신이 잠들기 전에	84
마음 단장		86
문화 즐기기		90
설레임전		91
설화수 뉴스		92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3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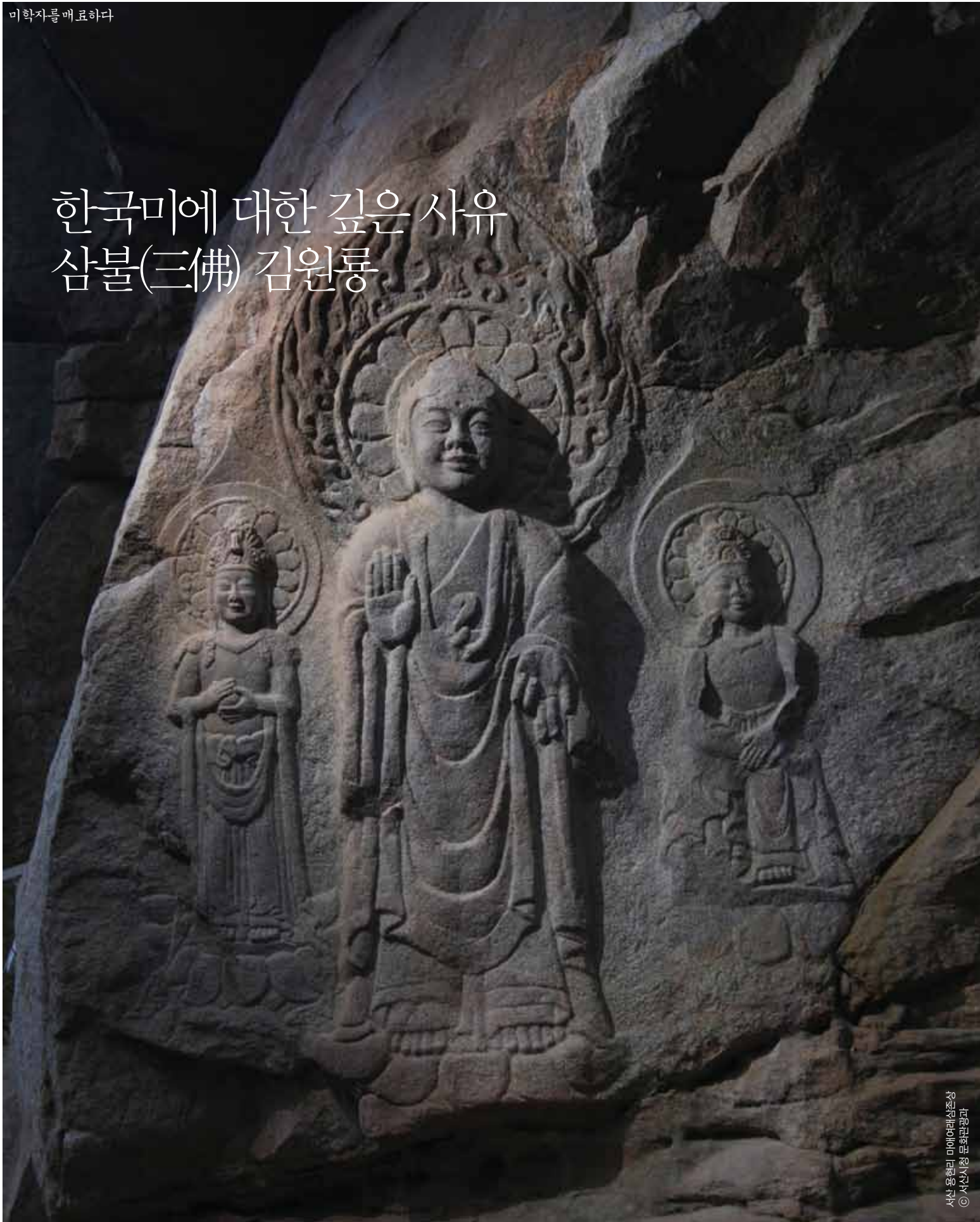
Sulwhasoo's design is inspired by the color aesthetics of Korea with the Five Colors of Korea.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2013 Jan/Feb issue discovered the radiant pink applied to the design of Innerise Regenerating Serum from women's ornaments (Danjang). The naturally dyed fine fabric, Brooch and Binyeo, and other crafts resemble the pink glow of Innerise Regenerating Serum.

설화수의 디자인에는 오방색에 기초한 우리의 색채미학이 들어있다. 2013년 1/2월호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여민에센스의 디자인에 적용된 해사한 분홍색을 여인의 단장(丹粧)에서 찾아냈다. 자연물로 색을 낸 고운 천, 브로치와 비녀, 공예품 등이 여민에센스의 분홍빛과 닮았다.

●발행인·서경애 ●편집인·권영소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번지 ●제작·MC 전략팀 ●문의·최상구 02)709-5401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문비송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3년 1월 1일(통권 제54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모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에 대한 깊은 사유 삼불(三佛) 김원룡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한국의 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온 사람 중 한 분으로 삼불 김원룡 선생을 들 수 있는데, 김원룡 선생은 우리 시대가 낳은 큰 문화 미술인으로서 말년에 곧잘 먹으로 문기가 넘치는 그림을 그려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삼불은 미술사가인 만큼 유물이나 회화적인 자료들을 사상적·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미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왔다.

삼불은 한국의 미를 한마디로 '자연의 미'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은 부드럽고 크지 않으며 단풍도 진하지 않아 은은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산을 감춰 버릴 만큼 화려한 외국의 단풍은 자연미가 오히려 반감된다고 여겼다. 또한 서양의 추상 미술은 인공적인 미술이기에 사람의 껍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스케일이 큰 산이나 들보다는 아기자기한 우리의 자연을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 한국미의 깊은 맛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자연은 맑고 아기자기하고 정겨우며 섬세하고 은은하여 빼어나게 아름다우므로 한국미의 특성을 자연의 미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미에는 미 이전의 근본적인 미가 담겨 있다면서 '시대와 분야에 따라서 미의 형태가 바뀌고 강약(強弱) 집산(集散)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미의 근본을 이루는 자연미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고구려 시대의 고분인 무용총의 수렵도 같은 그림에도 이러한 특성이 담겨 있는데, 자연미의 한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순진무구함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는 산맥을 사람이 나 뛰노는 호랑이보다 더 작게 그린 자연성과 순수함을 예찬했다. 더불어 '고구려 벽화에는 날카로운 선과 강렬한 색채에서 오는 그런 미가 아니라, 보통 세상살이 하는 사람의 세계에서 풍겨 나오는 은근한 자연의 미가 흐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자연의 미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국의 미'라 생각했기에 미나 추 이전에 근본적인 자연미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른다고 보았다. 삼불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마애삼존불 새 명칭)이나 경북 군위의 삼존석굴에서 백제와 신라인의 미소를 찾아내 서산의 마애불에는 화창하고 인간적인 웃음이 어려 있고, 신라의 군위불에는 '보이소.' 하는 경상도의 고집이 흐른다고 썼다. 이처럼 한국미에 대한 삼불의 의미심장한 사유는 한국미에 대한 단순한 예찬을 넘어 선조의 삶과 기질까지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미술은 오천년 넘는 역사를 지녔으나 갈수록 정체성의 불안함이 커지고 자존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은 우리의 미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 부족 탓이 아닐까?

한국의 미와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집필하며 한국의 미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으며, 더불어 한국 미술 문화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삼불은 석굴암 등에서 한국 특유의 정밀(靜謐)의 미, 적막(寂寞)의 미, 자연(自然)의 미 등을 맞볼 수 있다고 했다. 삼불의 한국미에 대한 깊은 사유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환기시켜 준다. 한국 미술이 다른 나라의 미술과 활발히 교류하며 세계적인 미술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정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1 삼불이 '은근한 자연의 미가 흐른다'고 평했던 고구려 시대의 고분 무용총의 수렵도. 2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였던 삼불(三佛) 김원룡(1922~1993).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 <한국고고학개설>, <한국미술사> 등이 있다.



향기로운 기운을 들이다

새해 새 아침 집안 곳곳의 묵은 공기를 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복돋아 줄 향기로운 물건들을 모았다.



2



3



4



5



6



7

1 향기로운 꽃을 따라온 나비를 모티프로 만든 자석은 오리엔탈 무드. 2 해당화에 물총새가 노니는 그림의 백자 점시는 김익영 작품으로 우일요. 3 만개한 꽃 같은 쿠션은 주미네. 4 한 장씩 뜯어 사용할 때 마다 향기로운 마음까지 전해지길. 메모지는 코즈모 갤러리. 5 해학적인 향 꽃이는 김운희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6 연잎 위에 올라간 물고기를 모티프로 만든 초 받침 점시는 자연공감도. 7 그윽한 라벤더와 페퍼민트 향의 거품이 나는 버블 볼은 홀로즈코리아.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는 고적한 암자에 향로가 놓인 한적한 풍경과 향을 피우며 돌솥에 차를 달여 마시는 상황을 묘사한 글이 있다. 그뿐인가. 완벽한 조형과 비색의 조화로 완성된 국보 95호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는 향을 가까이 두고 즐겼던 선조들의 애향 문화를 반증한다.

왜 향일까? 향은 긴장을 풀어 주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정신 집중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사 때 향을 피우고, 종교 행사에도 으레 여러 가지 향이 따른다.

새해 새날, 삶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계획하며 향초와 더불어 고요한 시간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 단단히 붙잡은 마음을 방해할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줄 작은 향초나 양증맞은 훈향 도구들을 준비해 보자. 싫증난 향수를 침구와 커튼, 쿠션, 옷장 속에 뿌려 보는 것도 방법. 그윽한 향이 감도는 집 안에 피어날 웃음꽃을 기대하며 말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도움 주신 곳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오리엔탈 무드(02-536-5280), 우일요(02-763-2562), 이도(02-722-0756), 자연공감도(02-762-5431), 주미네(070-8742-2698), 코즈모 갤러리(02-3446-0989), 토요(02-722-1260), 홀로즈코리아(02-742-3389)



8



9



10



11



12



13



14

8 꽃을 꽃지 않아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화병과 수국 생화를 도자로 만들어낸 수국 오브제는 김명례 작품으로 자연공감도. 9 매화 문양이 그려진 볼 캔들은 오리엔탈 무드. 10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향주머니는 코즈모 갤러리. 11 남자의 면도도 특별하게. 상큼한 자몽향의 세이빙 폼은 오리엔탈 무드. 12 꽃 위에 앉은 새가 양증맞은 향 꽃이는 김운희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3 꽃잎 모양의 초는 토요. 14 하얀 도자 속에서 은은하게 피울 수 있는 현대적인 미감의 향로는 현상화 작품으로 이도.



1

반짝반짝 빛나는

올 겨울 자칫 투박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겨울 아이템을 보다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면?
다채로운 색감과 모양의 액세서리에 주목해 보자.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1 영롱한 빛의 비취와 호박이 조화로운 브로치는 갤러리 미가. 2 원석과 나무, 가죽 단추를 장식한 매듭 목걸이는 이경임 작품으로 투워크 벤치. 3 원석의 푸른빛과 매화 장식 포인트 귀걸이는 갤러리 미가. 4 검정빛의 옉닉스, 노란빛의 호박 빛깔이 멋스러운 브로치는 갤러리 미가. 5 갸름한 꽃모양 반지는 박유진 작품으로 북촌상회. 6 소가죽을 이용한 머리핀은 박찬희 작품으로 틴. 7 짧은 감각이 돋보이는 체인 과 양가죽 링 팔찌는 자유 작품으로 에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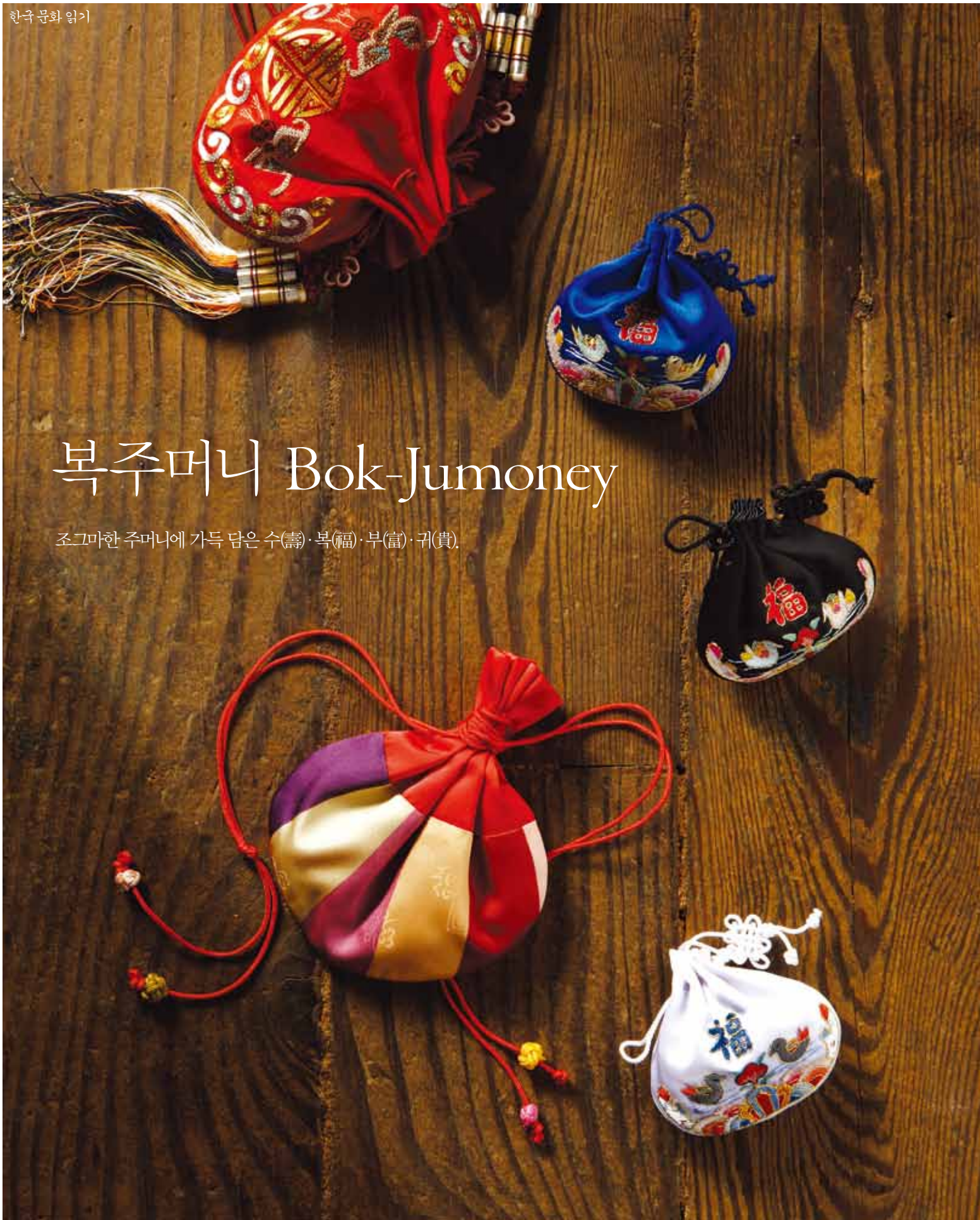
편안한 니트에서부터 풍성한 모피, 두꺼운 점퍼까지. 겨울에는 유독 어두운 색감의 옷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겨울 몸단장은 현대의 모노톤 일색의 그것과는 달랐다. 화려한 색상과 문양으로 수놓아진 비단에 털을 덧댄 배지를 입거나 보석과 매듭으로 장식한 방한용 난모를 머리에 써 멋을 냈다. 아무리 단조로운 색감의 옷을 입을지라도 고운 노리개로 마무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면을 모두 만족시켰던 것. 선조의 미적 감각을 겨울 옷장을 가득 채운 모노톤 의상에 매치하고 싶다면, 전통을 모티프로 하되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탄생된 과감한 액세서리에 눈길을 돌려 보자. 색감이 돋보이는 원석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과 대나무 뿌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팔찌는 어떨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세련되고 멋스러운 겨울 단장의 조건은 충분하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갤러리 미가(02-3453-9797), 나락실(02-723-9426), 북촌상회(02-747-0423), 비아케이(02-540-7453),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삼바이림(070-8803-8284), 소연(02-736-5949), 에스페라(02-732-2080), 연크래프트(010-4302-3248), 오리엔탈 무드(02-536-5280), 투워크 벤치(02-3676-1224), 틴(070-4127-3593)



8

8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당자마노와 쑥옥구슬의 보석이 돋보이는 목걸이와 반짝이는 자수정이 세련된 귀걸이는 김승희 작품으로 소연. 금과 은 펜던트가 고급스러운 목걸이와 옥, 진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사용해 만든 반지는 김송 작품으로 나락실. 공작새의 꼬리를 모티프로 만든 붉은 색 브로치는 연크래프트. 9 니트 브로치는 비아케이. 10 유리로 만든 펜던트가 앙증맞은 머리핀은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1 초록색 비취에 호박과 진주로 장식한 나비 모양의 뒤꽂이는 갤러리 미가. 12 깃털의 장식과 색감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머리핀은 임지혜 작품으로 삼바이림. 13 불규칙하게 커팅된 옉닉스 원석이 산뜻한 목걸이는 박찬희 작품으로 틴. 14 알록달록한 색감의 귀걸이는 오리엔탈 무드. 15 원석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대나무 뿌리의 조합이 멋스러운 팔찌는 자유 작품으로 에스페라.



복주머니 Bok-Jumoney

조그마한 주머니에 가득 담은 수(壽)·복(福)·부(富)·귀(貴).

한복 입은 허리춤에 달랑달랑 차고 다니던 예쁜 형짚 주머니. 아이들은 설날에 세배하고 받은 돈을 통장이나 책상 깊숙이 숨겨 두기 전까지 그 작은 주머니에 돈을 구깃구깃 넣어 보관하곤 했다. 세배할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그 형짚 주머니를 우린 복주머니라 부른다. 본디 한복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없어서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다녔다. 신라·고려·조선 시대에는 남녀 모두 사용했고, 신분에 따라 천의 소재나 색상·문양을 달리했다. 그중 특별히 음력 설날이나 정월 초하루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주머니를 복주머니라고 부르며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은 조선 시대 궁중에서 음력 정월 첫 해일(쥐날)에 붉은 콩 한 알씩을 붉은 종이에 싸서 넣은 주머니를 종친들에게 보내던 것으로, 이는 쥐날에 주머니를 차면 그해 일 년 내내 귀신이 물러가고 만복이 온다고 믿는 데서 비롯되었다. 복주머니를 만들 때는 적·홍·청·백 등 여러 가지 색채의 비단이나 무명이 쓰이고, 형태는 양모서리가 각이 진 귀주머니와 전체가 둥그스름한 모양의 두루주머니로 나뉜다. 고운 색감의 천에 길상(吉祥)의 뜻을 지닌 한자 수(壽)·복(福)·부(富)·귀(貴) 글자나 십장생·불로초·박쥐·국화 무늬를 수놓았다.

우리네 언어에는 음절은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지며 다양하게 쓰이는 말들이 참 많다. '담다' 또한 그렇다. 무형의 것을 유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데 있어 탁월했던 선조들은 마치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주머니에 '복을 담는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복이 어찌 그 작은 주머니에 담기는가. 자손의 무병장수를 염원하며 작은 주머니에 고운 무늬를 하나하나 새겨 넣은 여인의 정성스러운 시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곳 금단체(02-517-7243), 당초문 김인자 한복(02-765-4333)



This pretty fabric bag was tied to the waist, over Hanbok. Children kept in it the money they earned by bowing to the elderly on New Year's Day, before they deposited it in the bank or hid it in their desk. Bok-Jumoney (Korean Good Luck Bag) is how we call this fabric bag, which becomes heavier each time you bow to the elderly on New Year's Day. Hanbok does not have a pocket in which to put personal items, so a small bag was made to be worn on the waist or carried with the hand. Bok-Jumoney was the name for the bag that was exchanged on the Lunar New Year's Day to pray for good luck. This custom originated when the Palace sent a bag of roasted beans wrapped in red paper to each member of the royal family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s Day in the Joseon Dynasty. They believed that wearing this bag on this day kept bad spirits away and invited good luck all year. The colorful fabric was embroidered with lucky Chinese characters (壽, 福, 富, or 貴) or patterns (10 symbols of longevity, herb of eternal youth, bat, and chrysanthemums).

The Korean language has many words that sound the same but have different meanings. Damda (to contain) is one of them. Korean ancestors were good at comprehending intangible things as tangible things, and they used the term 'Damda' to mean 'containing luck' in a bag. How would you contain luck in a small bag? This must have been possible because women devoted time and efforts to embroidering the beautiful patterns one by one onto the small bag while praying for the well-being and longevity of their descendants.

얼굴 선과 눈매를 또렷하게 돌리다

주름은 수많은 노화의 징후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설화수에서는 총체적인 노화 관리에 주목한다. 얼굴의 빛, 결, 선을 되살리는 여민에센스와 눈매의 라인을 생생하게 살려 주는 자음생아이크림에 옳은 답이 있다.



사대부의 여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담장'이라 하여 피부를 정갈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선호했는데, 이는 젊고 아름다운 피부가 바탕이 되어야 실현되기에 자연스럽게 피부 미용법이 발전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 또한 사대부 여인들의 담장을 닮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천연 식물의 효과를 통해 피부를 다스렸던 전통 한방 미용법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방 미용법의 중요성이 '엄마 세대'를 넘어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과거에는 40대가 넘어 이미 진행된 노화를 늦추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서른 전후에 시작해야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젊은 안티에이징을 찾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한방 미용법과 젊은 안티에이징, 이 두 가지는 향후 몇 년간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의 한 축이 될 것이다.

피부의 빛, 결, 선을 살려 주는 설화수의 여민에센스가 더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대로 접어들면 잔주름이 생기고, 모공은 넓어지고 쳐진다. 게다가 피부의 탄력이 무너져 얼굴이 커 보이는 등 얼굴 선이 변한다. 이런 현상이 느껴진다면 피부 밀도가 저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필요가 있다. 여민에센스는 피부의 밀도를 높여 주름, 탄력, 얼굴빛을 개선시키는 데 총체적인 도움을 준다.

여민에센스에는 피부 밀도 인자를 활성화하는 영실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켈레의 열매인 영실은 예부터 각종 피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말린 꽃잎을 비벼 세안하는 등 화장품 대용으로도 활용되었다. 영실 성분 외에도 복용하면 안색을 좋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옥죽, 주름을 개선해 주는 홍삼사포닌 등이 함유되어 피부를 탄탄하고 조밀하게 채워 준다.

The noble women preferred refining makeup called 'Damjang' to enhance their beauty and herbal skincare techniques developed along with it, as it especially made for younger and beautiful skin. The latest global beauty trend is also about resembling the clean and clear skin of noble women. The world is interested in the traditional herbal skincare using natural plants while the importance of herbal skincare has reached out to younger women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In terms of anti-aging, women paid attention to slowing down aging after 40. Younger women today, however, search out for anti-aging because they have learned that it is more effective when started around 30. Herbal skincare and anti-aging will be the mainstream of global beauty trends for the next several years.

This is why Sulwhasoo Innerise Complete Serum attracts attention. As you enter your 30s, you begin to see fine lines and sagging pores. Your skin loses resilience to alter the facial contour. The essential reason is the loss of skin density, as fewer skin cells are left in your skin. Innerise Complete Serum enhances skin density to improve wrinkles, resilience, and complexion.

Innerise Complete Serum contains Rosa multiflorous fruits that activate skin-densifying factors. This fruit is great for detoxification and regeneration as it is used since the old times for various skin diseases, such as rashes and malignant tumors. Its dry petals were also used for cleansing. In addition to the fruit, the Serum also contains Polygonatum odoratum for vitality and red ginseng saponin for wrinkle correction as well as for firmer and denser skin.

왼쪽 피부의 속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피부 밀도를 바로 잡아 노화의 원인이 되는 피부의 결과 빛 선을 짙게 가꿔주는 여민에센스, 또렷한 얼굴 라인을 만들어 준다.

수경 재배로 깨끗하게 길러진 인삼의 뿌리와 줄기, 잎의 주요 성분이 눈가의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을 완화하여 눈가의 피부 형태를 가다듬어 주는 자음생아이크림. 달항아리 백자는 광주요.



끈뚱한 느낌의 '오일 인 워터' 타입의 유백색 제형이 피부에 밀착되어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녹진함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밤에는 물론 아침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다. 꾸준히 사용하면 밝아진 안색과 매끈하고 촉촉해진 피부결을 확인할 수 있다. 약 4주 후에는 탱탱한 탄력감을 느끼게 되며, 기대 이상의 노화 관리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노화 관리에 있어 얼굴 라인만큼 중요한 것이 또렷하고 촉촉한 눈매다. 주름이 눈가 노화의 척도로 여겨지지만, 그보다 먼저 눈가 나이를 가늠케 하는 것이 형태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꺼풀이 얇아져 힘없이 처지고 눈매가 울룩불룩하고 가늘게 변한다. 이런 눈매를 선명하고, 통통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살려야 생기 있고 젊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다.

자음생아이크림에는 깨끗한 수경 재배를 통해 길러 낸 인삼의 잎, 줄기, 뿌리가 모두 들어 있다. 항산화 효과를 통해 눈가의 열을 내려주는 잎, 눈가 피부 혈행을 원활하게 해 세포 증식에 도움을 주는 줄기, 탄력 증진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뿌리가 가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눈가의 형태를 바로잡아 준다.

아침 저녁으로 자음생아이크림을 사용하여 눈가에 쫘쫘함과 촉촉한 윤기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눈매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섬리안크림을 사용 중이라면 아침에는 섬리안크림으로 주름 개선과 보습 효과를 얻고, 저녁에는 자음생아이크림으로 노화된 눈가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현명한 사용법이다.

해가 바뀌면 자연스레 나이가 한 살 더해지지만, 피부까지 나이를 더 할 필요는 없을 듯. 여민에센스와 자음생아이크림을 통해 또렷한 얼굴선과 눈매를 살려 피부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것은 어떨까?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주신 곳 광주요(02-3446-4800)

The thick oil-in-water formula in off-white tone attaches to your skin for enhanced firmness and penetrates refreshingly for use both at night and in the morning. Use regularly to experience a brighter complexion and smoother, denser skin texture. Your skin feels firmer after four weeks of aging control beyond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aging control, well-defined and supple eyes are as important as well-defined facial contour. Wrinkles are considered the indicator of aging, but the shape determines how old your eyes look. As you age, your eyelids sag and become thinner. The thin and long eye contour should restore plumpness and definition to make you look younger and vibrant.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contains the leaves, stems, and roots of ginseng safely cultivated underwater. The synergy of leaves to relieve heat with antioxidants, the stems to proliferate cells through blood circulation, and the roots for firmness and wrinkle correction will hold the shape of your e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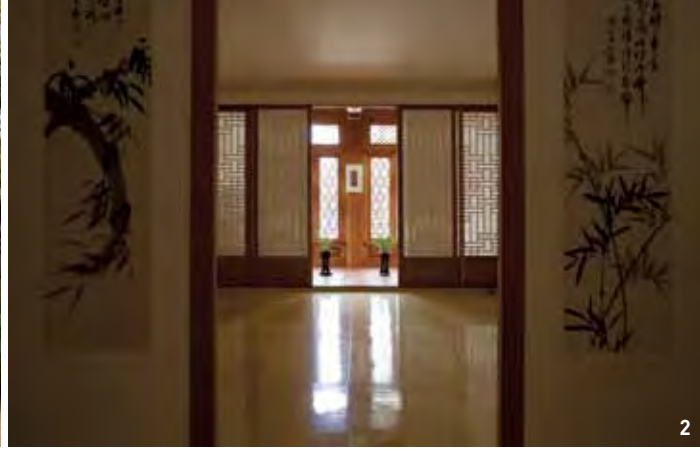
Us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every morning and evening to give ample nutrition, radiance, and refinement to your eyes. If you have been using Anti-aging Eye Cream, it is also good to use in the morning for wrinkle correction and hydration, whil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may be applied in the evening for general anti-aging care.

You age every year, but your skin should not age with you. Turn back the clock for your skin with Innerise Complete Serum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골무와 노리개에도 소망과 미를 담았던 여인들

우리는 한 세기를 삼대가 나눠 산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란 시점은 할머니들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지만 광속으로 서구식 삶에 뛰어든 우리는 그 시절을 잊고 말았다. 이 역사적 문화적 단절이 우리 삶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이다. 해서 2013 기사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 복원이 필요한 옛 삶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1 여성들에게 정독대는 신주처럼 지켜 내야 할 특별한 공간이었다. 집안 내림음식의 맛을 좌우한 '장'의 보관 장소이기도 했고, 매운 시집살이 설움에 복받친 울음을 쏟아내던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다. 2 양의 숙 대표의 제주 집 선장현(船匠軒) 내부. 제주 토박이인 그는 시단법인 '제주문화서포터즈'를 발족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나무에 화각으로 목단과 학을 새긴 화각 싹패. 길이 9.9cm의 자그마한 사이즈로 조선 시대 작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 편안한 집이란 뜻의 '가인당'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했다. 5 선장현은 전통건축을 전공한 남편과의 합작품이다. 고체 소나무와 현 기와를 활용해 세월을 빌려다 지은 이 집의 문간채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다. 6 마당 연못 너머로 문간채와 연결된 2층짜리 사랑채가 보인다.

삶을 추억하는 데 가장 유용한 통로는 '물건'이다. 까맣게 잊었던 일도 작은 물건 하나로 온전히 복원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 20년 가까이 <TV쇼 진품명품>을 통해 민속품을 감정해 온 양의숙(고미술 화랑 예나르 대표) 씨는 이 낯선 길을 안내해 줄 적임자다. 게다가 제주 토박이인 그가 5년 전,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에 지은 한옥 '선장현'에서 만나자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TV 모니터가 아닌, 무주와 더불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제주의 허파 꽃자왈에서 양의숙 대표가 꺼낸 첫 마디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 시절 한국 여인들은 미를 추구할 줄 알았다."였다. 한마디로 지금과 비교해 품격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의 일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일에 무에 그리 특별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당시엔 소비보다는 창의적 미(美)의 추구를 일상에서 실천했다는 점이다. 물론 생활이 넉넉한 집안이나 사대부 여인들의 일상은 그러했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듯 규방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방'이란 공간에서의 시간이 길었고, 중요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예와 바느질이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싹패나 자, 반진고리 같은 걸 보세요. 놀라운 건 기능성만 강조하지 않고, 이런 도구들조차 정교한 치장의 대상으로 여기는 감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색실로 문양을 새긴 골무를 본 적이 있는가? 그 화려함이라니, 여인들에게 골무는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호칭으로 싸고 이불깃으로 멋을 낸 재래식 이불을 손수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양의숙 대표는 "어떤 바느질도 골무를 끼면 거저먹는다."고 귀띔했다. 흔히들 한국 여성들의 숨씨가 오랜 바느질 전통에서 나온다고 한다. 우리는 이 빼어난 기능에, 노동의 도구에서까지 미적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 한국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3

그 시절 여인들은 시집을 때 수백 개의 골무를 가져왔단다. 그들이 챙겨온 건 그뿐이 아니었다.

"한번은 출장 감정을 갔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으로 입어 보지도 못한 옷들이 보자기에 싸여 무더기로 나왔어요. 멧쟁이 할머니가 호사를 부렸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집을 때 바리바리 챙겨 온 혼수랍니다. 층층시하 시집살이에 제 옷 해 입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친정어머니가 평생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신 거지요."

물건은 그저 형태만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와 문화,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대화를 청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다. 물건을 통해 한국 여성들의 삶을 설명하던 그가 갑자기 '몸중'을 화제에 올렸다. 사대부가의 노마님들이 어린 계집종과 함께 생활했던 이유를 나이가 들며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다.

"예전엔 그저 양반들의 호사쯤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 건망증으로 놓친 자잘한 일상을 챙겨 줄 몸중은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도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덧붙여 감정 표현이 금기시되었던 당시, 반가의 여성이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몸중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9살 처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물'을 밟아 봤다는 그는 이후 40년 넘게 우리 민속품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그에게 민속품이란 어떤 의미일까? 길게 이어진 그의 경험과 철학에 대한 소회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물건이란 그 시대의 염원이 담긴 대상이자 증거."이다.

"귀이개를 겸한 방아다리노리개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량이 부족한 반가의 여인들이 무릎 관절의 건강을 염원하며 그런 모양의 노리개를 만든 거죠. 해학과 염원이 함께 깃든 물건인 셈인데, 우리네 여인들의 안목이 그 정도였어요."

그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로 든 것은 화려함과 소박함으로



4



5



6



1



2



3



4

1 양의숙 대표의 유일한 호사가 '정감한 이불'이다. 손수 바늘질해 호청을 길아 끼운 뒤, 깃으로 갈무리한 이부자리는 이 세상 어떤 이불과도 바꾸지 않겠다. 2 배를 만드는 장인의 집이란 호소를 가진 '선장 한'은 의외로 소박함이 넘친다. 차장을 경계한 조선 여인의 풍모를 담은 집. 민속품 전문가답게 작은 소품으로 멋을 냈다. 3 창호를 등진 의자 하나. 노년의 삶처럼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따스한 햇살에 제 몸을 쉬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4 양 대표의 친정어머니가 시집을 때 마련해 준 버선의 목을 질러, 덧버선으로 신고 있단다. 허안 버선에 어머니는 어떤 심정을 담아 보냈을까? 5 조선 시대 여인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비단 골무 상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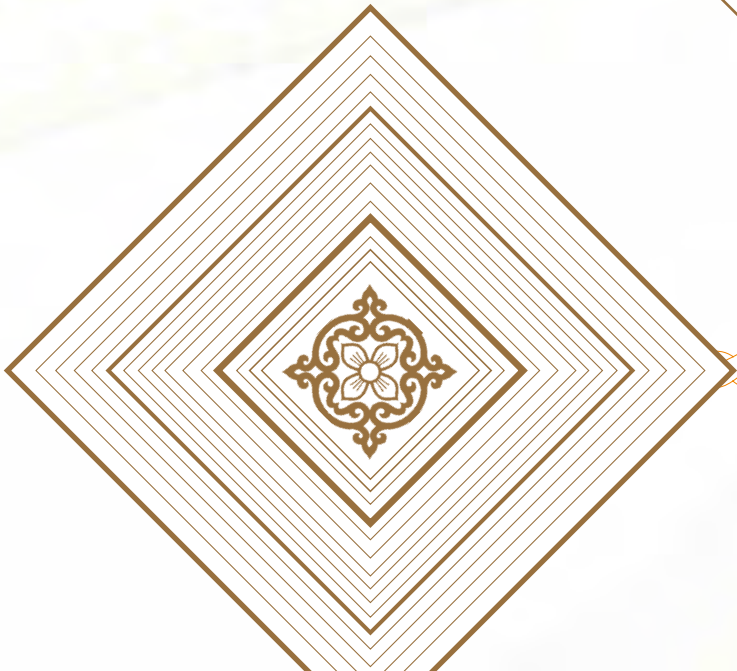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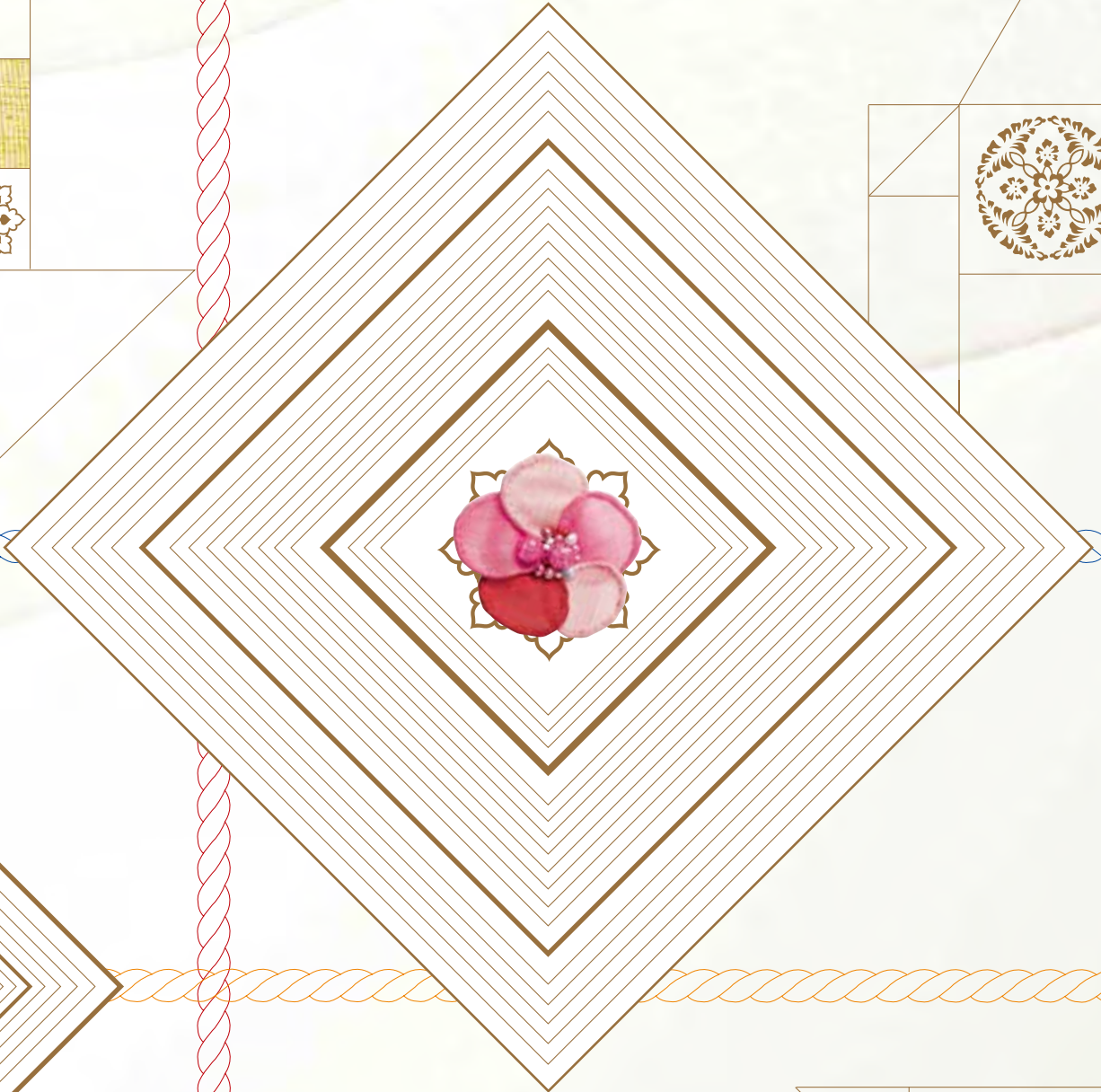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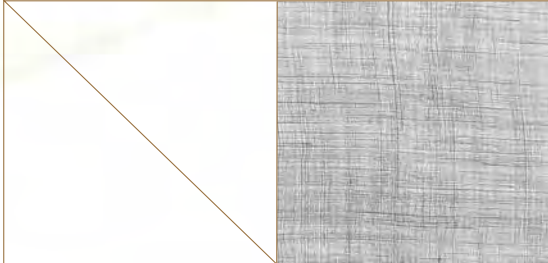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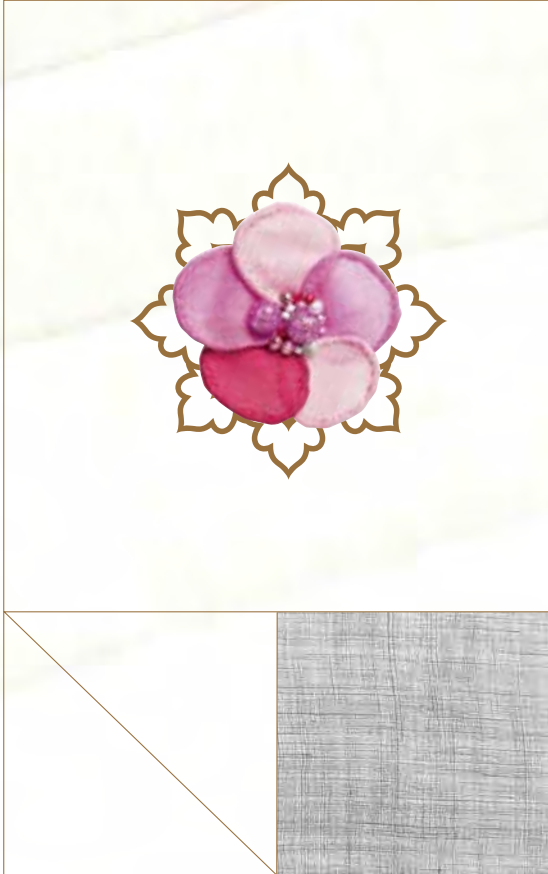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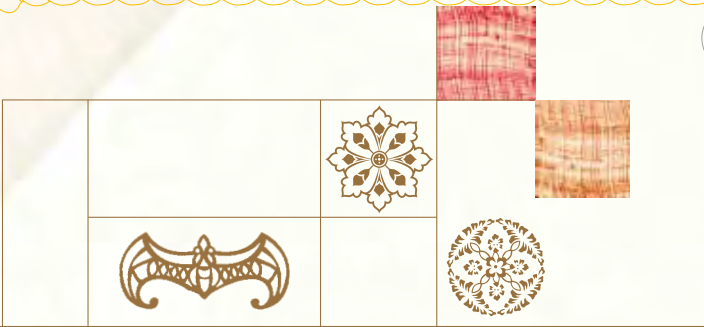
대비되는 고려와 조선의 물건, 그리고 귀족과 서민 공예였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의 문화가 화려함의 극치로 치닫 것이었다면, 그 반동으로 태어난 조선의 문화는 백자처럼 절제미가 강조된 것이었다. 종교가 망국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 개혁가 정도전은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유교를 혁명의 이데올로기로 삼았고, 그 정치적 변화가 문화에 녹아들어, 절제를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민속품은 민중의 정서와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 그가 민속품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전했다. “그 옛날,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울타리 곁에 오동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딸과 함께 자란 오동나무가 15년쯤 지나 장 하나 짤 수 있는 목재가 되면, 아버지는 장인을 불러 긴 세월 구상했던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가구 주문을 했습니다.” 호화혼수가 말썽이 되는 세상,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선대 문화인가. 이런 끈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100년 전 옛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시절, 물건의 생산이 지금과 크게 다르다는 점 또한 더불어 깨닫게 된다.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주문자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속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증언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 옛날 선비는 자신이 쓸 서안을 만들 때 어떤 문양을 넣을지, 서랍의 위치는 어디로 할지를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다. 디자인에 관여하는 선비라. 지금은 절대로 쉽지 않을 과정이 당시엔 당연한 문화였던 것이다.



5

양의숙 대표는 요즘 민속품 감정에 머물지 않고 전통 방식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가구 제작에도 직접 뛰어 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반달이와 뒤주를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던 선조들의 감각과 서구 디자인을 공부한 후손들의 숨씨가 만나면, 우리가 열광하는 이태리 가구보다 더 나은 작품이 나오리라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급격한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단절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 수십 년, 서구 학문에 단련된 후손들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만 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21세기 미감을 충족시킬 작품이 이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고향에 지은 한옥에서의 생활이 어떠냐고 말이다. “한옥이란 게 손이 많이 가는 집이잖아요. 여기 와 있다가 서울에 가면 이웃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요. 까맣게 탄 얼굴에 살이 내려서 올라가니까요. 몸은 고되지만 집을 나설 때면, 내가 쉬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올레길’이 드러내 놓고 제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면, 그의 지인들이 입주한 문화예술인 마을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조용히 이끌고 있는 비밀의 정원쯤 될까. 그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양의숙 대표를 만난 뒤, 맞는 신년은 각별한 해가 될 것 같다. S

글 최태원 사진 전택수



매해 정월 초하루가 돌아오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실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믐날 대청소를 해서 가는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날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새해 아침이 밝아오면 예법에
맞추어 차례를 지내 조상에 감사하고,
만물을 정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자손이 새날을 실감하고,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예지미로 새날을 열다



옛사람들의 새날맞이

예부터 새해가 시작되면 말씨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집안 어른을 찾아다니며 절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를 올렸다. 여기에는 지난해의 불운을 모두 물리치고 경건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날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신년의 설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새날을 맞이하는 옛사람들의 태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다양한 신년 풍습들을 한 글자의 열쇳말(keyword)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근(謹, 삼가다, 언행을 조심하다)’이 될 것이다. 근하신년(謹賀新年) 또는 ‘삼가 새해를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때의 바로 그 표현.

세밀을 떠들썩하게 보내고 원단(元旦)부터 심기일전하라는 게 아니다. 가까이는 제야(除夜, 설달그믐 밤), 멀게는 ‘아세(亞歲, 작은 설)’라 부르던 동지(冬至)부터 일찍잡치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을 삼가야 한다. 묵은 시간과 새 시간이 무처럼 썩듯 분리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도 ‘잘 맞이하려면 잘 보내야 한다.’는 지혜로운 깨우침이 있었던 까닭이다.

수세(守歲), 배웅과 마중의 시간

제야가 되면 선비들은 가족과 친지, 마을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잘못을 하늘에 고백하고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세모삼성(歲暮三省)’이라 한다. 여염집에도 이와 비슷한 ‘수세(守歲)’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설달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실려 있다.

“...제야에는 방, 부엌, 장독대는 물론이고 외양간이나 뒷간까지 밤새 등불을 돋워 놓는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차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신년의 해를 맞는다.”

수세는 부엌신, 즉 조왕(竈王)을 맞는 행사였다. 조왕은 1년 동안 부엌에 머무르며 가족들의 행실을 지켜본 다음 승천하여 옥황상제에게 그 내용들을 낱알이 고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듬해의 복과 화를 배정받아 그믐날 밤에 다시 내려온다. 그런 날이었으니 감히 부정 타는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제야는 이렇듯 누구에게나 성찰과 사색의 시간이었다. 심지어는 동트기 전까지 잠도 자지 않았고, 간혹 어린아이들이 졸음에 겨워 눈을 감으면 ‘제야에 자면 눈썹이 하얗게 쏜다.’며 야단을 치기도 했다. 배웅과 마중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던 옛사람들에게 묵은해의 마지막 밤과 새해의 첫 새벽은 공히 깨어 있어야 마땅한 귀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덕담(德談), 믿음의 문법

덕담은 비문법적이다.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고 시제가 무시된다. 이를테면 총각예겐 “올해엔 장가 가야지?”가 아니라 “금년에 혼례를 치렀지? 축하하네.”라고 해야 올바른 덕담이 된다. 이는 말 속에 신비한 힘이 담겨 있다는 언령사상(言靈思想)에서 비롯된 어법이다. 단정적 과거형으로 미래를 얘기하면 하늘도 외면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이 덕담이라는 풍습을 낳았다는 얘기가.

언령사상은 비과학적인 낡은 믿음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희망이 담긴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것은 심리학자들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를 입증한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여인상을 열렬히 사랑했던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훗날 그 조각상은 아프로디테의 힘을 빌려 인간으로 변신하고,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은 교사들의 칭찬과 격려가 평범한 학생들을 수재로 바꾼다는 것을 입증한 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 했다.

이 심리학적 진실은 덕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건네는 이의 간절함이 듣는 이의 강렬한 자기 암시로 이어질 때 덕담 속의 예언은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과거로 표현되었던 미래는 서서히 현실로 바뀌어 간다. 수천 년을 두고 다져진 믿음의 문법! 말의 힘을 빌려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축원의 언어가 바로 설날 아침의 덕담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위한 지혜

매일 뜨는 해라도 원단의 일출이 유난히 찬란하듯 늘 하던 일들도 새 날 아침엔 의미가 특별하다. 이날 군신(君臣)과 사제(師弟)를 비롯하여 이웃과 벗들 사이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갔는데, 첫 글자는 대부분 ‘세(歲)’로 시작되었다.

궁궐에선 임금이 신하들에게 도화서에서 만든 그림들을 선물했는데 이를 세화(歲畫)라 하였다. 세배객들에게 내는 음식은 세찬(歲饌), 세찬과 함께 건네는 술은 세주(歲酒)다. 관청 아전들과 군영의 나졸들은 종이로 만든 새 명함을 만들어 지역 유지들에게 돌렸는데, 이를 세함(歲函)이라 하였다.

선물 또한 다양하게 주고받았다. 16세기 학자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꽃감 두 점과 건수어(乾水魚, 건어류) 4미(尾), 참빗 10개를 주었다. 나는 최○○에게 쌀 5두를 보내고 구비(舊婢, 옛 노비)인 파치에게도 쌀 1두를 보냈다.”(1568년 설)

설렘을 갈무리하며 차분하게 이어지던 시간들은 대보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굶판이나 쥐불놀이 같은 역동적 풍경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듯 설 앞뒤 달포가량을 삼가며 보내는 것은 경건한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위한 옛사람들의 지혜였을 터, 혹시 양력 연말연시를 어수선하게 보냈다면 음력 세밀과 설이라도 좀 다르게 보내 보면 어떨까. 벗들에게 건넨 좋은 문구 하나쯤 떠올리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조선 말 일본 임제종 종연선사가 우리나라 학명선사(1867~1929)에게 보냈던 연하장 구절처럼.

“我送舊年 汝迎新年(나는 이제 묵은해를 보내지만 당신은 새해를 맞으소서).”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심장생 중 소나무와 학, 사슴. 조선 시대 때 신년을 축하하며 왕과 신하들이 세화를 주고받았는데, 천상계와 지상계, 수계의 대표적인 불로장생의 상징인 심장생을 그린 그림이 가장 많다.

은근스스하게 어둠을 뚫어 갓치다

선조들은 건강함을 지키고 덕을 행하며
재물에 부족함 없이 오래도록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후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
을 인생의 다섯 가지 복으로 여겼다.
지금도 이런 염원은 변함이 없다.
오복을 갖추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던
정월 풍경을 둘러본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05), 행복한바느질(02-730-6928),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02-398-7900), 박해리공방(02-542-4692), 동방상련
(02-391-0077), 나은크라프트(02-799-2259), 북촌상회(02-747-0423),
우리그릇레(02-549-7573)



정갈한 마당에 복이 들어온다

설날만큼 많은 풍습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 그믐날이다. 그믐날의 풍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청소였다. 청소를 통해 한해의 액운을 모두 떨쳐내고 정갈한 마음으로 새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설날 아침이면 집안 어른들이 '빗자루에 온갖 복이 쫓겨 나가니 청소를 삼가라.'고 단속했다. 차례와 손님맞이로 바쁜 설날 아침, 청소하는 노고를 덜어 주려던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믐날 목은 때를 모두 벗겨내고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 마당에 신년의 복이 그득 들어앉았다.



나누면 더 커지는 오복

정월에 찾아온 손님에게 세찬과 세주를 내고, 덕담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복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정겨운 시간을 나눴다. 그리고 안주인은 설날 찾아온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함께 오지 못한 일가친척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세찬과 선물을 전했다. 보자기에 담긴 것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였다.

꽃잎 다섯 장이 오복을 상징하는 매화 무늬 이단 둥근 찬합과 자개 장식의 오단 찬합은 나은크라프트, 비단이 덧대어진 꽃신과 보자기, 누비저고리와 흑색 치마는 모두 차이.



오복을 치장하다

우리 선조들이 새 옷을 준비해 입는 날이 일 년에 3일뿐이었는데, 그 첫 번째 날이 설날이다. 설빔으로 갈아입고, 노리개와 비녀, 가락지 등으로 멋을 더했다. 신년의 복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꾸밈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으리라. 특히 설처럼 의미가 있는 날에는 오복을 뜻하는 박쥐문 장신구를 많이 지니며, 꾸밈 하나에도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합에 든 비취박쥐삼작과 밀화와 비취에 박쥐 다섯 마리를 조각한 복주머니삼작, 목단 조각 산호향갑노리개는 모두 옥장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수련 문양을 새긴 칠기루 합은 나은크라프트, 누빔 매트는 행복한바느질.



주머니에 오복을 담아지니다

정월, 아이들의 허리춤에는 쌀, 보리, 조, 기장, 콩을 담은 오곡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수복강녕(壽福康寧) 등의 문자를 수놓은 주머니에 곡식을 담아 지니고 있으면 오복이 들어온다고 여겼다. 여인들은 오곡을 담은 주머니를 만들어 새해 찾아온 일가친척에게 선물로 주는 풍습도 있었다. 곡식을 귀히 여기는 농경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복자가 새겨진 그릇은 규방도감 소장품이며, 붉은 비단 복주머니는 북촌상회, 오방색 보자기는 행복한바느질



상차림에 오복을 담아낸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 따르면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됐으며, 상고 시대 이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식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 했다. 신조들은 떡국 외에도 가래떡을 동그랗게 빚어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 나눠 먹으며 재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그 밖에 건강과 장수 등 오복을 기원하는 문양이나 문자를 넣은 떡을 만들어 상에 올렸다.

소반은 가구디자이너 강희정의 작품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각 쿠션 커버는 박혜리공방, 접시는 우리그릇려, 흑칠 수저받침과 젓가락은 나은크라프트, 엽전떡은 동변상련



새해의 선물, 달력 이야기

지금이야 흔한 게 달력이지만 옛날엔 달력만큼 귀한 것도 없었다. 씨 뿌릴 때와 거둬들일 때를 알려 주는 것도 달력이고, 일식 월식 같은 괴변(怪變)들을 미리 알려 혼란을 막아 주는 것도 달력이었다. 일월(日月)을 섬기며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던 농경 민족에게 달력은 곧 삶과 노동과 신앙의 일정표였던 것이다.

중국에선 백성들에게 달력을 나눠 주는 게 제왕의 책무였다. 권력자들은 하늘의 시간을 정확히 읽어냄으로써 스스로가 하늘의 아들(天子)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법이 등장했던 것은 그런 까닭이다. 달력은 이렇듯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니, 드라마 <미실>에서 미실이 절대권력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사다함의 매화'도 다름 아닌 역법(대명력)이었다.

한반도에서 달력과 관련된 기록 중 제일 오래된 것은 부여의 제천 의식 영고(迎鼓)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영고는 은력(殷曆, 은나라 달력) 정월 초하루에 열렸는데 지금으로 치면 동지(冬至)다. 더 이상 해가 낮아지지 않고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날! 동짓날은 은나라는 물론이고 로마에서도 오랫동안 새해의 첫날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제각기 중국의 역법을 썼다. 통일 신라와 고려 때는 9세기 당나라 때 만들어진 선명력이 쓰이다가 충선왕 때 원(元)의 수시력으로 바뀌었고, 공민왕 때 명(明)의 대통력이 들어온다. 세종대왕 때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 자체 관측 자료 등을 집대성한 최초의 자주적 역법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이 등장하였지만 성리학자들은 여전히 대통력을 숭배했다.

그러나 정작 명나라 황제는 북경에 머물던 서양 과학자들의 정확한 일식 예측에 매료되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한다. 그때 생겨난 시헌력은 조선에서 효종 이후 250년간 사용되었고, 고종 때 서양식 그레고리력이 도입되면서 이 땅의 달력은 오랜 태음력의 역사를 뒤로 하고 태양력으로 바뀌게 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관상감에서 동짓날 임금에게 새해 달력을 올렸고, 임금은 거기에 옥새를 찍어 관리들에게 나눠 주었다. 관리들 역시 동지에서 대보름 사이에 주위 사람들에게 달력을 선물했기에, 이로부터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는 유명한 말이 생겨났다. 여름 부채와 겨울 달력. 때에 꼭 맞는 적절한 선물이라는 뜻이다.

2013년, 세상은 바뀌었고 달력의 쓰임새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고금(古今)은 물론이고 훗날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에 단위를 부여하여 '끝'과 '시작'을 구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낡은 날들을 배웅하고, 새로운 날들을 마중할 수 있다. 하루, 한 달, 또는 1년. 언제든 또 한 번의 시작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속 깊은 스승이 바로 달력이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조선의 궁, 그 문으로 들어서다

도심의 한복판에서 조선 시대로 되짚어 간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부침(浮沈)을 가슴에 품고 대한제국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고종의 고뇌가 겨울 바람보다 매섭게 느껴지는 덕수궁을 지나, 400년 가까이 조선의 정궁으로 치세를 이루었던 경복궁으로 들어선다. 둥글게 열린 건춘문을 지나 다시 길을 오르면 창덕궁과 창경궁에 닿는다. 시대의 번성과 쇠락을 모두 가늠할 수 있는 궁은 조선 시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부
다
한
다
다
의
크
의
별
의
별
의
다

덕수궁의 건물 중 가장 나중에 지어진 덕홍전 내부에서 앞쪽 주간의 분합문을 바라봤다. 이 문을 통해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만나기 위해 외국 사신들과 조정 대신이 무시로 드나들었다. 근대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이곳의 백미는 간결한 띠살분합문과 빛살 무늬 광창 사이를 장식한 황금빛 이화(梨花)문.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문 사이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별이 따사롭다.

This is the view of Bunhapmun from inside the Deokhongjeon Hall, the newest building in the Deoksugung Palace. The foreign envoys and government officials passed through this gate to meet King Gojong. The simple gate with thin bars and the pattern of golden pear blossoms exemplify the greatest beauty of this gate with modern architectural styles. The warm sunlight shines through the pear blossoms, the symbol of Daehan Empire.





밤의 궁궐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깃든다

밤의 궁궐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깃든다. 정전(正殿)과 성문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잡상이 노을을 받은 추녀마루 끝에 걸려 영험하게 보인다. 경복궁은 건물마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행렬을 묘사한 잡상을 올렸는데, 이 잡상이 왕에게 향하는 살(煞)을 막아낸다 믿었다. 밤이 되니 덕수궁 석어당이 붉을 밝혔다. 단청 장식 없이 소박하게 올려진 석어당의 띠창살이 불빛을 받아 선명히 드러났다.

The palace exudes a different beauty at night. The decorating tiles that were only available for the central building and the gate are hanging at the end of eaves beneath the sunset. Gyeongbokgung Palace used decorating tiles that depict the parade of the Monkey King and Priest Samjang on every building, believing that they would protect the king. Seogeodang Hall at Deoksugung Palace light up at night, exposing the humble window bars of Seogeodang.



경복궁의 동쪽 궁문인 건춘문에서 바라본 근정전의 모습과 자경전의 꽃담. 칼바람을 뚫고 고궁 순례에 나섰더라도 이 둘을 마주한다면 이내 계절의 순환을 느낄 수 있다. 건춘문은 '봄을 세운다'는 의미로 건너편 영추문(가을을 맞이한다)과 짝을 이루며 계절을 부르고 맞이하며 자경전 꽃담 역시 각기 매화, 천도, 모란, 국화등이 색깔이 든 벽돌로 장식되어 언제나 사철이 여기에 있다.

Geunjeongjeon Hall and the floral walls of Jagyeongjeon are seen from Geonchunmun (erecting spring), the east gate of Gyeongbokgung Palace. Even in the cold winds of winter, you can feel the circulation of the seasons here. Geonchunmun pairs with Yeongchumun (greeting fall) to greet the seasons. The flower walls of Jagyeongjeon are also ornamented with bricks in the colors of Prunus mume, peach, peony, and chrysanthemums representing each season.





살얼음이
번지는
수면에
어리다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 앞 연못에 어린 건축물은 선향재이다. '좋은 향기가 서린 집'이라는 뜻을 지닌 선향재는 서재이자 손님에 맞이하며 사랑채 역할을 했으니 어찌 좋은 향이 나지 않았겠는가. 선향재는 지금도 전시나 회의 장소 등으로 쓰이며 우리에게 궁을 안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문화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살얼음이 번진 연못에 선향재의 향기까지 어렸다.

What is reflected on the pond in front of Yeongyeongdang of Changdeokgung Palace is the roof of Seonhyangjae. Seonhyangjae (a house with a good scent), which served as a library and guesthouse, was always filled with a good scent. This house is still used for exhibitions and meetings as it allows us to see from inside the palace as a cultural hub. The scent of Seonhyangjae is also reflected on the pond covered with thin ice.



아나운서 최윤영

비우니까, 채워지더라

육아 문제로 프리랜서를 선언했다는 그녀의 행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에디터는 별다른 수선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인으로선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엄마로서는 당연한 결정임을 감지했으니까. 지난해 쉽지 않은 선택의 터널을 지난 최윤영 아나운서를 만났다. 따뜻한 방송인과 마주해서인지, 아니면 또래 아이를 키우는 동질감 덕분인지 어색한 서두는 가볍게 생략할 수 있었다.

종종 우리의 삶이 절대자의 손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자신의 욕심대로 추구했던 삶이, 생각지도 않던 가지치기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났던 기억처럼 말이다. 올해로 서른 일곱을 맞은 최윤영 아나운서도 비슷한 경우다. '지나와 보니' 그 길이 맞았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 유독 많았다. 그 사이 놓여진 일련의 과정은 그래서 더 감동스러운 순간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그녀가 아나운서가 된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시기 접했던 책 한 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신은경 아나운서의 <9시 뉴스를 기다리며>. 한 마디로 '멋있었다'. 사춘기 소녀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 그 자체였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방송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일하는 선배 프로듀서에게 제작 보조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며칠 뒤 리포터를 뽑는 오디션에 응시해 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운 좋게 합격을 하고 첫걸음을 뚝 방송이 <컴퓨터 정보광장>의 리포터였어요."

인생, 참 재미있다. 최근 그녀가 MBC를 그만두고 복귀한 EBS <부모> 프로듀서가 자신과 첫걸음을 함께했던 '그' 프로듀서였다(어쩐지 인상이 낮이 익다 싶었다). 그렇게 리포터로 방송을 시작해 각종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꽤 잘 나가던 시기, 그녀는 MBC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다. 생각해 보면 만류가 가득했던 암울한 상황이었다. 이미 리포터와 MC로 활발하게 활동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당락이 방송 생활에 외려 좋지 않을 거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워낙 범생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면 휘둘릴 만도 한데요(웃음), 당시에는 이미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제 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이 씨앗이 되어 마음에 뿌리를 내린 뒤였으니까요.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었는지, 주변의 만류에도 쉽게 꺾이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그때 시험을 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까.' 종종 생각해요."

그녀에게 MBC는 따뜻한 온돌방 같은 방송국이다. 직장이라는 수식어 대신 동아리 같은 단어를 들이대고 싶을 정도다. 이해관계보다 정으로 얽힌 사이, 딱 그러했다. 무엇보다 인간 최윤영을 바꿔 놓은 시사 다큐멘터리 <W>를 만난 곳이다. 당시 그녀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개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계 각지의 아픔을 전하면서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다. 나 혹은 대한민국에 사로잡혔던 시선은 자연히 넓어지고 밝아졌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무관한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귀엽다. 딱 거기에서 끝났죠. 그런데 <W>를 통해 오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령 극빈층이 많은 아이티에서는 아이들이 배를 채우려고 진흙 쿠키를 먹어요. 고운 진흙에 약간의 소금과 마가린으로 맛을 더해서 한 살배기 아이가 배를 채웁니다. 어떤 갓난아이는 자신의 머리보다 더 큰 혹을 배에 달고 살아요. 손쓸 방법이 없으니 엄마는 눈물만 흘리죠. 방송을 하면서 인권 앞에 국경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했어요."

진흙쿠키 방송을 얘기하면서 그녀는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인터뷰는 잠시 끊겼고 감정은 쉽게 조여지지 않았다. 세상 위에는 수많은 희극과 비극이 동시에 벌어진다. 아이들의 손에서 오물조물 놀이가 되는 진흙이 세상 저편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허기를 채우는 밥이 된다. 마음이 쓰라린 현실이다.

"2005년부터 5년 남짓 <W>를 진행하면서 아동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던 차에 아동구조기구인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변화가 일었던 때가 덤석 기회를 잡았고 활동을 하면서 새로





운 비전을 갖게 됐죠. 인생에서 '방송인 최윤영'은 순위가 낮아지는 대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게 됐어요. 제가 먼 미래에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린이를 위한 일일 겁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생방송 오늘아침〉과 같은 시사 방송을 10년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를 뉴스로 전달하면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 어쩌면 그녀가 최근에 겪은 일련의 화제성 이야기들, 그러니까 MBC를 퇴사하고 프리랜서가 되어 EBS 〈부모〉로 복귀한 것은 〈W〉와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의 연장선인 듯했다.

방송을 통해 아이에 대해 애정을 키워 가던 2009년, 딸 서연이를 얻었다. 하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진짜 복병은 휴직을 끝낸 뒤에 찾아왔다. 엄마의 자리가 비면서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울음과 짜증으로 뒤덮인 거였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똑같은 심판대에 오른다. 공존할 수 없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방향하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그것이 자신에게든, 아이에게든). 그녀의 선택 기준은 '행복'이라는 두 글자.

'아이 기질이 순했다면 아마 방송국에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데다 엄마 '껌딱지'일 만큼 저를 따랐어요.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기준은 더 행복한 쪽에 무게를 두자는 거였어요. 당연히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방송에 복귀하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십성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직장 여성의 애환을 한탄했고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속 모르는 얘기를 쏟아냈다. 모든 뒷얘기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한 가지였다. 신기하게도, 비유니까 비로소 채워지더라는 것! 자신의 신의 조율 안에서 존재함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다.

고백하자면 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이 함량 미달의 엄마가 아닌지 되짚기도 했다. 그랬던 차에 〈부모〉 제작팀에서 진행을 제의했다. 손에서 방송을 내려놓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 다시 놓여지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온갖 궁금증을 엄마 입장에서 풀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던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죠. 가령 이런 순간들이예요. 한번은 이유식을 먹던 서연이가 유리컵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파편을 튀기면서 유리컵은 산산조각이 났죠. 얼마 뒤, 주변에 있던 유리컵을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이가 왜 이럴까, 심리가 못된 걸까,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했죠. 방송을 하면서 알았어요. 아이는 그저 세상을 탐험하면서 나이에 맞게 발달하는 중이었던 거죠.”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섭외 전화가 밀려들지만 아직까지는 선을 긋는 중이다. 우선 지난해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서인지 당분간은 정신 없이 쏟아진 삶의 낱알을 주위 가며 자신을 추스를 생각이다. 원래 서른 일곱이라는 나이가 그렇다. 자신의 온 몸의 세포까지 낱알이 훑어보고 싶은, 낯선 사춘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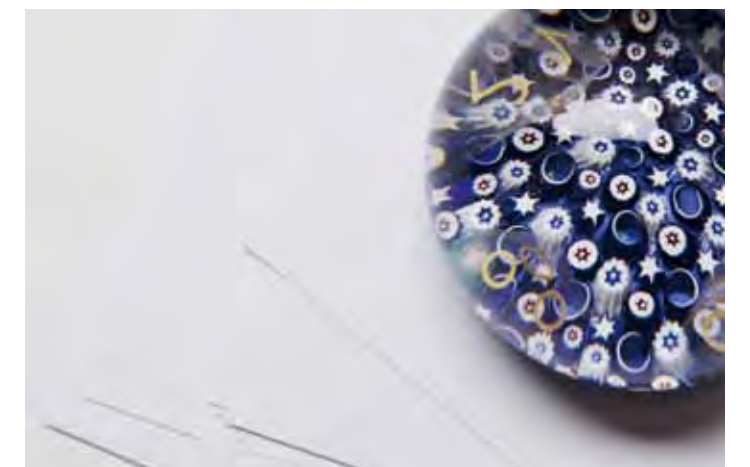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깨어 있기, 가슴 벅찬 일상을 오롯이 즐기기. 아나운서 최윤영이 엄마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소화시키는 과정, 그 사이에 행복은 존재하며 꿈틀댄다. 이제 씨앗에서 나무가 된 인간 최윤영이 누군가를 위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갈 차례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김민선(보보리스 02-549-0988) 메이크업 손화정(보보리스 02-549-0988)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주신 곳 모그(02-515-9895), 주크(02-546-7764), 보브(02-3447-7701), 디누에(02-3444-4756)



les Cristalleries de Saint-Louis
 빛의 조각품을 계승하다,
 생루이 크리스털

생루이 크리스털의 생생한 컬러와 기하학적인 구조들은
 컨템포러리 아트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만큼 생루이 크리스털의 문진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변함없는 기묘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 연도와 고유 번호가 붙는 생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문진은 특유의 화려함과 정교함으로 기하
 예술작품이라 불릴 만하다.



1



2



3



4



5

6

세계 유명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전 세계의 컬렉터들이 수집하며 그 가치를 높여 가고 있는 생루이 크리스털의 탄생은 1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리 세공사 '문츠탈(Munzthal)'에 의해 유리와 크리스털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프랑스 로렌 지방의 심장부에서 출발한 생루이 크리스털은 1767년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생루이 제품을 왕실에 들이면서 크리스털 제품에 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한다.

루이 15세는 생루이 크리스털의 정교함을 높이 사 특히 편지를 보내고, 직접 'Verrerie Royale de Saint-Louis'라는 이름을 하사하였고, 왕실용 크리스털을 제조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후 이곳에서 선보이는 모든 제품에는 생루이라는 이름이 붙고, 제조 연도와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손 안에서 빛나는 작은 잔에서부터 어둠을 밝히는 샹들리에까지, 빛의 조각품으로 칭송되는 생루이의 작품들은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그리고 생루이의 진가를 아는 컬렉터들의 가슴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다.

생루이 크리스털의 제품은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 현대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그 판타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 생루이 크리스털의 밀레피오리(millefiori, 꽃유리)로 문진(文鑢)을 만들어 내는 기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레피오리는 갖가지 빛깔의 유리 막대를 뒤섞은 유리를 가로로 잘라 접합하여 투명 유리에 채워 넣은 뒤 다시 원하는 형태로 불어서 완성시킨다. 이렇게 완성된 문진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장식품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선명하고 다채로운 컬러 때문. 원통형 틀로 만들어 냉각시킨 크리스털 막대는 약 15미터의 쇠막대(반쯤 용해된 유리를 취급하는 데 쓰이는 도구)를 이용해 유리액을 떼어내 잡아 늘이면서 만든다. 마치 긴 크리스털로 만든 '스파게티'처럼. 아름다운 크리스털 막대는 문진의 장식으로 사용될 색색의 둥근 조각들로 절단된 뒤 '윤내기'와 '커팅'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

1 용해된 크리스털은 쇠막대에 달라붙어 주형 속에 삽입된다. 2,3 크리스털에 삽입된 플로랄 모티프. 4 크리스털 막대 다발. 5,6 인물, 역사 등 다양한 문양으로 제작된 문진들.



2
3

1



4



5



6

밀레피오리의 인기는 생루이의 황금기라 불리던 19세기 중반 전성기를 누렸다. 유럽 각국의 왕족과 귀족, 젠트리(gentry, 귀족의 지위는 없지만 가문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중간계층)들이 생루이의 크리스털 보석으로 만든 한정판 밀레피오리 작품을 갖기 위해 경쟁하곤 했다. 생루이가 각광을 받자 바카라(Baccarat)와 클리시(Clichy) 같은 크리스털 제조 회사들은 재빠르게 모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은 빠르게 지나갔으며, 문진 생산도 점차 줄었다. 크리스털에 삽입되어 역사적인 테마에 적용되거나 다색의 크리스털 막대 모음으로 제작되어 ‘봉봉(bonbons)’이라는 이름이 붙어 날개로 팔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세기 초 생루이의 크리스털 문진의 진가를 알아보는 컬렉터들의 높은 관심 속에 생루이가 돌아왔다. 대표적인 컬렉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 잔느 랑방(Jeanne Lanvin)과 프랑스 여류 소설가인 콜레트(Colette). 콜레트는 구혼자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 “당신의 에메랄드는 나를 질리게 하고 다이아몬드는 나를 얼어붙게 하며 모피는 내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름다운 문진만이 감미로운 기분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당신은 언제나 이해하게 될지!”

1950년, 생루이의 디렉터 제라르 앵골드(Gerard Ingold)가 문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거물급 컬렉터 폴 조켈슨(Paul Jokelson)의 열정으로 생루이 크리스털 문진이 부활했다. 생루이 레비취 아틀리에(Ateliers de Saint-Louis-Les-Bitche)에서는 매년 컬렉터들과 각국의 유명 박물관들이 경합하도록 8~10개의 한정판 모델을 내놓기도 한다. 문진의 원래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생한 컬러와 기하학적인 구조들은 컨템포러리 아트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만큼 생루이 크리스털의 문진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변함없는 기묘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알릭스 드 디브(Alix de Dives) 사진 장 마크 팔리스(Jean-Marc Palisse)

1,4 꽃, 추상적 이미지 등 문진에 삽입되는 예술적인 모티프들. 2,3 생루이의 명품 크리스털이 만들어지는 작업실. 5 갖가지 빛깔의 유리 막대들이 모여 별, 꽃이 가득한 신천지를 만들어낸다. 6 다양한 색상 크리스털이 겹쳐진 표면을 커팅하는 과정.



팀 버튼의 그림들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

〈팀 버튼〉전은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 온 팀 버튼 감독의 새로운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다. '할리우드라는 어둡고 우울한 공장에 비치는 한 줄기 섬광 같은 존재'라는 평을 듣는 진정한 몽상가요 예술인 팀 버튼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팀 버튼이 만든 영화는 그 누구의 것과도 다르다. 그의 영화 이미지는 한 편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상력으로 물든 음산한 이미지들의 편린이 스쳐 지나간다.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묘한 유머와 해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나중에야 그가 그림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모아 전시를 하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니 그는 화가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몽상하고 그것을 모아 영화를 만드는 영상 시인, 영상 화가인 셈이다. 그에게 그림 그리기와 이를 영화화하는 작업은 다른 일 이 아니다.

〈팀 버튼〉전을 통해 그가 그린 그림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팀 버튼〉전은 오는 4월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데, 이번 전시에는 팀 버튼이 어린 시절에 그린 습작부터 회화, 데생, 사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 모형과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관해 온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700여 점의 선보이다. 〈가위손〉, 〈배트맨〉, 〈크리스마스의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의 영화를 구상할 때 그린 스케치부터, 캐릭터 모형들, 실제 영화 속에 등장한 소품 등 흥미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 온 팀 버튼 감독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전시가 열리는 첫날 아침에 미술관에 들었다. 날이 차고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장 안에는 젊은 남녀들이 바글거렸다. 한결같이 팀 버튼 영화의 마니아들인 듯했다. 전시장에는 영화 속 장면과 이미지들이 튀어나와 그림으로, 조각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시장에 걸리고 놓인 이미지들은 단순한 에스키스나 취미로 그린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인 드로잉, 회화, 입체물이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과 대화하고 상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독특한 상상력 속에서 불거져 나온 이미지들은 악몽 같기도 하고 괴이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발랄하다. 마치 거미의 몸에서 나오는 실처럼 선들이 자유롭게 번져 나가고 엉기면서 묘한 형상과 상황을 만들고 있다. 냅킨과 노트, 메모지와 캔버스를 가리지 않고 배우면서 무엇인가를 그려 나간 궤적이 전시장 안에 가득했다. 팀 버튼 역시 유년기에 오로지 그림 그리기에서 위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작은 종이에 자신만의 왕국을 가설하고 온갖 것들을 그려 나가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도 같았다.

그는 스스로 '지옥의 구멍'이라고 부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에서 태어났다. 1958년이 었다. 가족으로는 부모와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자신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 하는 부모에게 항상 거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 버튼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 것은 그림뿐이었다.

"어린 시절에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어른이 된 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운이 좋다면 그런 감정들을 발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요."(팀 버튼)

그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드 오브 아트에 진학해 애니메이션(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전공)을 공부했다. 2학년 을 마치고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했지만 식상한 디즈니표 애니메이션에 실



1 기묘한 음악 속에 엽기적인 인형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어둡고 어두운 방. 2 〈유령 신부〉의 주인공 '빅터'와 '코프스 브라이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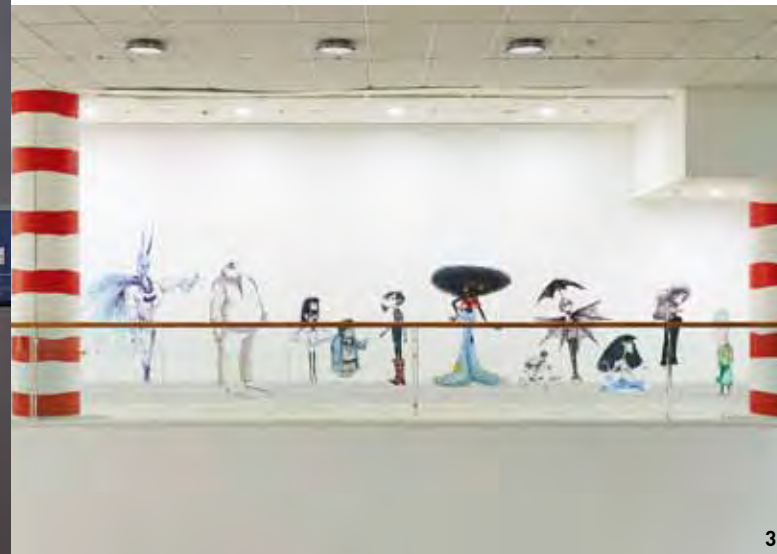


원셀과그레
Homel and Grell

1



2



3



4



5

망하여 그만두고 <피위의 대모험>(1985)으로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한다. 이후 <배트맨>,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공장> 등을 발표하여 독특한 감성을 드러내는, 내밀하고도 개인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영화감독으로 자리를 잡았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어린이가 같은 감성을 바탕으로, 기괴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팀 버튼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졌다. 그는 '어린이 같은 느낌'에서 많은 단초를 끌어와 작업을 한다. 그는 "어린이 같은 느낌에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열쇠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 그림에는 힘과 열정, 그리고 명확함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간다. 이른바 '타락'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그들이 그린 그림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길들여지고 상투화되고 관습적인 시선으로 사물과 세계를 대하고 그린다. 타락하는 것이다. 여기서 타락이란 문화적인 것을 말한다. 아이들은 커서 문화의 틀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버튼은 그런 틀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과 단순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늘 어린이와 같은 힘과 열정, 단순함을 지니고 싶어한다.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있고자 한다. 그의 그림과 영화는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다. 그는 혼자만의 세계에 거주하는 고독한 자이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잠자기를 좋아하며(그는 잠에는 정말 멋진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며, 향

상 일종의 슬픔을 느끼며 살아간다. 생각해 보면 예술가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저는 아주 내면화되어 있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인 방식보다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켜내려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팀 버튼)

팀 버튼은 오롯이 자신의 미학과 정신을 담아내는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개성적이고 놀라운 상상력을 지닌 영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창적인 사유와 길들여지지 않은 눈과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이 창조적인 예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그의 영화들은 순전히 비주얼에 관한 작품이며, 비주얼이 어떻게 인물들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팀 버튼의 영화는 무척이나 인상적이며, 사람들의 감성에 곧바로 다가간다.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그의 영화 <가위손>의 주인공이 팀 버튼이라고 생각한다. 외롭고, 오해받고, 온통 분류하고 파괴만 하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만들어 내고 싶어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의 영화는 어지러운 만큼 유쾌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갑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올지 짐작할 수가 없다. 그가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황당함 사이의 독특한 경계에 놓여 있다. 그 경계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그림이 지닌 매력을 알려 주는 단서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박영택(경희대학교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지엔씨미디어 (02-323-9161)

1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그린 드로잉, 영상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 2 초기 작품 <빈센트>의 주인공 '빈센트'와 그의 애원견 모형. 3 3층 전시실 복도에는 그의 영화 속 주인공을 프린트한 그림을 벽면에 설치해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4 모험과 포즈를 취한 팀 버튼. 5 2층 전시장에는 그의 어린 시절 드로잉과 괴물 조각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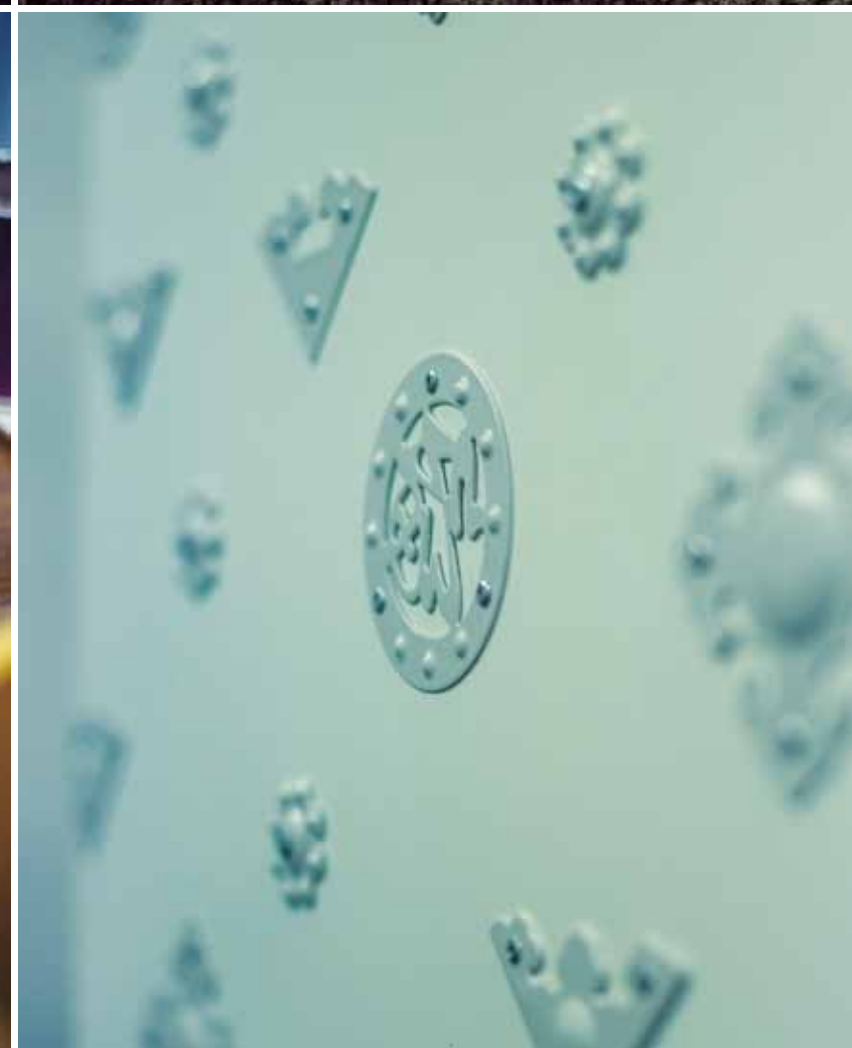


전통과의 통섭을 외치다

‘가고있는길에 전통이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렇지만 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해서 ‘설화수’는 올 한 해 동안, 전통과의 조우를 즐기고 있는 현대 작가들과 만나 그들의 다양한 작업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뜨거운 접점이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지난 세월, 자의든 타의든 깊신을 벗어던지고 구두를 신어야 했던 한국인들은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랬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다양한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건 그런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 절단면을 잇기 위한 예술가들의 불꽃 튀는 '문화적 용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 명쾌한 해답을 줄 한 사람이 있다. 가구 디자이너 하지훈(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그동안 꾸준히 소반, 돛자리, 책상 등 전통적 소재를 작품 속에 녹여 온 그에게 물었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사용해 온 것은 단순히 기술적 차용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작가적 선택인가, 하고 말이다.

“제가 한국인이지만 전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 시절엔 철저히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덴마크에서 유학까지 했어요.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 해도 밀라노 페어에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의 전통 양식을 차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과 다름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할까요.”

그는 스스로를 '다름'에 집중하는 디자이너라고 했다. 앙드레 김을 예로 들며,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떠나, 누가 봐도 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만큼은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되묻는 그다. 그렇다면 하지훈은 자신의 DNA 속 한국의 전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전통적 요소를 자주 끌어들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거나 목표는 아니에요. 자개나 소반의 형식미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할 뿐이죠. 가감 없이 그게 답니다.”

정리하면 하지훈이란 작가는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적합한 소재(전통)를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문양이 다양한 해주 소반 대신 담백한 나주 소반을 선택한 것은 소반이란 전통 양식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주 소반의 소박한 형식미가 자신의 구상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을 소재로 작업을 할 때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통에 짓눌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요즘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유럽 가구의 본고장에서 공부한 디자이너다. 그러니 북유럽 가구가 왜 한국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2002년에 귀국할 때만 해도 북유럽에서 공부한 내 스타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이탈리아 유학이 대세였던 시절에 덴마크로 유학 간다고 했더니, 교수님마저 소꿉 짜려고 거길 가냐고 했을 정도죠. (웃음) 그저 북유럽의 감성을 받아들인 이 시대와 소비자에게 감사를 따릅니다. 분명한 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스타일의 매력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북유럽 스타일이 1940~70년대 디자인이란 거 말입니다. 일종의 앤티크죠. 그런 구닥다리가 왜 인기일까요?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그들의 디자인은 시대성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 1940년대에 만든 의자나 포크가 미래 사회를 다룬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맨 인 블랙>의 소품으로 쓰인 것만 봐도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십 년 전 디자인이 지금도 유효한 덴마크의 경우, 역설적으로 현재의 디자이너들은 그만큼 입지가 좁다고 한다. 하지만 덴마크의 디자이너들은 전통 정신은 계승하되 새로운 소재 등을 찾는 방식으로

“작품에 전통적 요소를 많이 끌어들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거나 목표는 아니에요. 자개나 소반의 형식미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할 뿐이죠. 가감 없이 그게 답니다.”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찾기 위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북유럽 스타일에 대한 열광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시크하게 대꾸하는 하지훈에게 덴마크에서의 경험은 그를 있게 한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다. 한국이 그에게 감성을 준 고국이라면, 덴마크는 냉철한 디자인의 논리 체계를 가르친 엄격한 교사였던 것. 그는 덴마크 디자인에 대해 “뺄 수 있는 모든 것을 뺀 다음의 디자인”이라고 규정했다. 덴마크는 그에게 서구식 교육과 경험, 호기심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고, 한국은 장인의 기질을 가르쳐 줬다. 일례로 나주 소반장 김춘식 선생은 그에게 협업의 기쁨을 알게 해 준 동반자였다.

“대다수의 테크니션은 자신이 시도하지 않은 방식은 무조건 틀렸다고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열린 시각을 갖고 있었고, 덕분에 전통에 소극적이었던 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죠.”

그랬다. 하 작가가 전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대했을 때,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고 소반의 상판 소재만 바꾸는 식의 소극적 시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지닌 파트너와의 협업이 가능해지자 용기를 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덴마크 유학 시절, 그들의 교육 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가구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죠. 가구라는 장르의 매력은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의 경계선을 절묘하게 넘나들 수 있어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그 경계선을 오가는 버라이어티의 활력이 저에겐 에너지가 됩니다. 예컨대 의자라는 물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조건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실리는 시간과 사람이 떠났을 때의 무생물의 시간이 그것이죠. 사람이 앉을 때는 기능성이 강조되지만,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의자는 조형적 의미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거든요. 디자이너는 의자를 만들면서 이 두 가지 중 어떤 시간의 손을 들어 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면 의자는 아름답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기능성에 무게를 두면 덜 아름답지만 편한 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요즘 고객에게 예술성이 강조된 의자를 내밀며 “이 의자의 예술성을 존중할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지훈은 요즘 유행하는 수식어로 ‘뺏속까지 디자이너’임을 잊지 않고 산다. 아무리 예술성을 강조하고 싶어도 양보할 수 없는 ‘기능성’의 기준이 있기 때문. 태생이 디자이너인 것이다.

“순수미술을 기초로 하는 설치미술가의 작품은 만질 수 없는 대상이지만 디자이너인 저의 작품은 만지고 앉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이 다르죠.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 다른 것이지요. 순수미술 세계에서 정답이 디자이너에게는 오답일 수 있고, 디자인 세계에서 오답이 순수미술에서는 정답일 수 있거든요.”

관람자의 입장에서 하지훈의 작품이 왜 신선하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는 설명이다. 우리의 전통을 작품에 녹이길 즐기는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가 가는 길이 정답이든 아니든 박수를 보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S

에디터 최태원 사진 왕태균





산천을
품었으니
기운이
가득하다

스에 좋은 기운을 미친다는 蓼, 인삼은 산천의 기운을 뿌리에 온전히 품고 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먹는 인삼은 체온을 끌어올려 면역력을 높여 준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면 피부 자생력이 높아져 겉과 안이 고루 단단해진다. 겨울은 사람의 몸에 인삼의 기운을 부여해야 할 때다.

인삼대추탕

같은 양의 인삼과 대추를 20배의 물에 넣고 문근하게 끓인다. 처음에는 맑게 마시다가 인삼과 대추가 푹고 아지면 체에 내려 걸쭉한 차로 만든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而愁占者如是而能

寵祿受介福於

自當求之蓋六

雖上无應援不能

母祖母也謂陰之至

進之難也然守其真正

之德非強於

柔和一作

其母

之德非強於

柔和一作

其母

之德非強於

柔和一作

其母

之德非強於

柔和一作

其母

之德非強於

柔和一作

其母



인삼카니페

인삼의 몸통 부분을 잘게 썰어 동량의 물에 끓인다. 꿀을 넣고 농도를 조절하면서 윤기가 날 때까지 졸인다. 인삼의 잔뿌리를 곁들여 뿌리와 몸통을 고루 먹으면 부드러운 단맛과 잔뿌리에 질게 남아 있는 인삼향이 오래도록 입속에 맴돈다.

인삼이 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정기(精氣)인가

인삼은 무구한 세월을 거슬러 우리 땅에서 자라고, 우리 곁을 지키며 귀히 대접받았다. 중국 양나라 시대를 기록한 <양서(梁書)>에 보면 “무제 시대(武帝時代)에 고구려와 백제가 인삼을 자주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진나라 때 편찬된 <국정백록(國定百錄)>에도 “고려에서 인삼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했으며, 중국에 조공품으로 보낼 정도로 고급 약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인삼의 재배 과정이 까다롭고, 한반도에서 자란 것을 최고로 치는 연유도 있었지만, 인삼이 사람의 몸을 이롭게 했기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났던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본초학서인 <신농본초경>에 따르면 약효가 영험한 약재 365종을 상·중·하품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인삼을 으뜸 상품으로 분류하며,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적었다. 현대에 와서는 옛 문헌에 기록된 인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며 더욱 극진히 대접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삼의 이로우미 몸통과 뿌리뿐 아니라 잎과 열매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귀한 약재로 사랑받고 있다. 인삼이 어디 피로만 물리치고, 혈액만 맑게 하던가. 인삼의 이로우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아름다움의 정석으로 여겨지던 ‘황진희가 왜 인삼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삼 우려낸 물로 목욕을 했는지’ 알게 해 주었다. 인삼이 피부를 곱게 하고 기미와 잡티를 예방하며 주름을 방지하는 등 미용에도 이롭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니 인삼이야말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키며 사람의 곁과 속을 모두 아름답게 해 준 한반도의 정기(精氣)라 칭하기에 손색이 없다.

에디터 김희성 푸드아트 오장미 사진 이종근 캘리그래피 이규복

* 인삼은 농축액, 차, 정과 등으로 가공되며,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가득히 눈이 쌓이다

밤사이 눈이 내려 세상 가득히 하얗게 쌓였다. 눈은 나뭇가지를 덮고, 대지를 빼곡히 채우고, 개울물에 살얼음을 내렸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이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흐른다. 갓 피어난 여인의 피부처럼 뽀얗고 맑구나.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대설(大雪)

-신흥(申欽)

墳壑埋山極日同(전학매산극목동)
瓊瑤世界水晶宮(경요세계수정궁)
人間畫史知無數(인간화사지무수)
難寫陰陽變化功(난사음양변화공)

골 메우고 산을 덮어, 천지가 한 세계
영롱한 옥빛세상, 반짝이는 수정궁궐이로다
인간 세상 화가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음양 변화 그 공덕을 그려내기 어려우리라.

윤조에센스는 겨울의 메미른 피부에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주는 부스팅 에센스다. 황기 성분이 피부
의 흐름을 좋게 하고, 백문동과 감초 추출물이 조화롭
게 작용해 건강한 윤택함을 선사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
동사(洞詞) 中

간밤의 눈 갠(후)에 景物(경물)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난 萬頃琉璃(만경유리) 뒤희난
千疊玉山(천첩옥산)
至國憲(지국충) 至國憲(지국충) 於思臥(어사와)
仙界(선계)나 佛界(불계)나 人間(인간)이
아니로다.

간 밤에 눈 갠 후에 경치가 다르구나
배 저어라 배 저어라
앞에는 유리바다 뒤에는 첩첩옥산
찌저덩 찌저덩 어여차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자음생 진본유는 피부 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방 에센스 오일, 인삼 종자유가 피부 방어력을 높여 외부 자극 등으로 트러블이 많아지는 겨울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동백유 성분이 피부를 맑게 가꾸어 준다.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차, 덕을 말하다

고요한 차 한 잔에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능케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차의 정신, 10가지 덕목

우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차와 사람, 그리고 '정신'을 생각한다. '정신'이 마음의 자세나 태도,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혹은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한다면, '차의 정신'이란 항상 염두에 두고 명심할 차인의 마음자세나 태도요, 차인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적인 정신세계일 것이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에서 정신을 논하다니,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당나라의 서예가이자 다인이었던 안진경은 차에 대해 “뻗속까지 깨끗이 하고, 마음의 근원을 씻어 소통시킨다.”고 읊었다. 차 마시는 것이 단지 생리적인 보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는 정신적 작용까지 하고 있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 신라 때 네 명의 화랑이 경포대·한송정 등지에서 차를 마시며 사용했던 석조·석정(石井)·석지(石池) 등의 유물이 발견되고, 경덕왕이 승려 월명(月明)에게 차를 예물로 주었다는 기록도 전해지는데, 이는 이 시대의 선량(選良)이었던 이들에게 정신을 맑게 해 주는 차의 효능은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차의 고매한 정신적인 세계는 '10가지(十則) 덕목'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바로 정성과 실천(精行), 검소함과 덕성(儉德), 어우러짐과 공경(和敬), 청결과 고요함의 유지(淸寂), 나아갈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알맞게 즉, 수시처중(隨時處中)할 줄 아는 자세(中)로써 균형 감각(正)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10가지 '차의 정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는 차를 우려내거나 손님맞이, 접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적용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한가함을 찾아내고, 이 수월치 않은 정신을 곱씹어 가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저 풍류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락의 시간일지니.

첫 찻자리 그리고 삼다연

새해의 첫 달이다. 저마다의 안부를 묻고 삶의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소중한 벗, 친지와와 찻자리에 그윽한 향의 삼다연을 추천한다. 삼다연은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적 후발효차다. 제주를 대표하는 나무인 삼나무로 저장 통을 만들고 녹차를 넣어 제주 동굴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킨 결과 삼나무의 그윽한 향과 깊은 맛을 지녔다. 새해를 시작하는 찻자리에 더할나위 없는 품격 있는 차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음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 (02-541-6480), 토요 (02-722-1260) 참고 문헌 (그림으로 읽는 육우의 다경, 다경도설(구기호, 이문아침))



위 삼나무의 그윽한 향과 깊은 맛을 지닌 삼다연, 다양한 차 시, 차방, 차스푼은 모두 토요. 왼쪽 청자, 백자 등 다양한 찻잔은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당신이 잠들기 전에

충분한 숙면과 정성을 다한 마사지로
탄력 있는 동안 얼굴을 만드는 설화수의 동안 비책.



“一,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변을 식힐 것 二, 아침밥에는 야채를 먹을 것 三, 목욕을 자조 말 것 四, 하로에 한번 맛사-지를 할 것 五, 물로 눈을 잘 씻을 것 六, 잘 때에 분을 시치버리고 잘 것 七, 니스발을 희게 할 것 八, 얼굴 모습을 맡어 머리를 비슬 것 九, 거울 압해 5분간 정좌할 것 十, 화장은 7~8분으로 얹히 할 것” 1920년대의 대중잡지인 <별건곤> 25호에 나오는 <미인되는 비결>의 한 토막이다. 미인이 되기 위해 잘 자고 잘 먹고, 화장을 잘 지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나이와 상관없는 미인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다.

마흔이 넘어서야 화장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이 종종 있다. 외출이 두려워진다는 것이다. 피부의 결점과 주름을 가려 줄 완벽한 커버력의 파운데이션과 색조 화장 없이 외출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립스틱 하나 바르지 않았을 뿐인데 아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부 나이만큼은 멈추게 하고 싶다면 더 이상 숨기고 가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화장을 지웠을 때의 내 진짜 얼굴에 충실하자. 진짜 얼굴을 어려 보이게 하는 첫 번째 비법은 숙면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세포 분열이 활발한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완전히 달라진 피부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잠을 잘 때는 성장호르몬과 수면의 질을 높여 주는 프로락틴이 증가한다. 성장호르몬은 어린 시절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이 끝난 후에는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인데, 질 좋은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주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가벼운 마사지는 얼굴 근육의 이완 수축 운동을 도와 동안의 조건인 탄력 있는 얼굴 선을 만들어 준다. 이때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바른 후 마사지를 하면 흡수율이 높아져 효능이 배가된다. 세안 후, 기초 단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마사지를 돕는 크림이나 페이스 오일을 얼굴에 적당히 바른다. 이어 이마부터 목까지 아래 방향으로 얼굴 전체를 살짝 꼬집어 준 뒤, 가볍게 주먹을 쥐고 하관의 페이스 라인을 따라 힘을 가해 누른다. 턱부터 귀까지 살을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사용해 피부를 밀어 주고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후 얼굴을 지그시 눌러 주면 처진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 주는 리프팅 마사지가 마무리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박해리공방(02-542-469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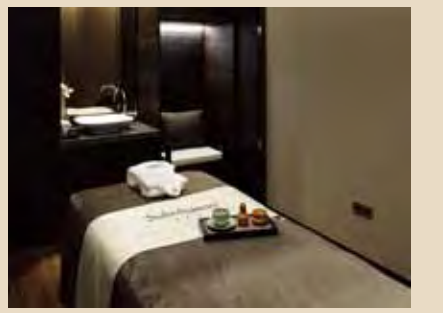


인삼씨 오일을 원료로 만들어 탁월한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기능을 선사하는 자음생 진분유.

동안비책 자음생 진분유와 설화수 스파의 만남

자음생 진분유는 인삼 종자유가 피부의 힘을 강화해 피부 노화를 방지해 주는 안티에이징 기능의 한방 에센스 오일이다. 인삼 종자유는 피부 방어물질의 분비를 원활히 해 피부 노화 현상의 시작인 피부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뛰어난 보습 유지력으로 촉촉함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준다. 자음생 진분유로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설화수 스파의 '고영양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설화수 스파에서의 경험은 설화수 제품으로 받는 극진한 대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줄 것이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뮤지컬 |

환영과도 같은 무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25주년을 기념해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작품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에디터 문비송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 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6만5천 회 이상 공연, 27개국 145개 도시에서 1억 3천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 역사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열혈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공연으로 19세기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흥족한 얼굴을 가진 채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 음악가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귀족 청년 라의 러브 스토리를 담았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매력적인 음악의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밤의 노래(The Music of the Night)' 등은 18인조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연주와 함께 관객들을 황홀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또한 웅장한 세트와 특수효과도 볼거리. 230여 명의 의상이 설 새 없이 무대를 뒤덮고, 20만 개의 유리구슬로 치장한 1톤 무게의 대형 샹들리에가 객석으로 곧 두박질치는가 하면 무대를 가득 채운 자욱한 안개와 안개 속에서 솟아오른 281개의 촛불 사이로 팬텀과 크리스틴을 태운 나룻배가 등장하는 지하호수 신등 마법 같은 특수효과는 어느 뮤지컬에서도 볼 수 없는 <오페라의 유령>의 백미다. 이번 25주년 내한 공연을 위해 주인공 팬텀 역엔 브로드웨이와 세계 투어에서 2천200여 회 팬텀 역을 연기한 배우 브래드 리틀이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2월 28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77-3363 **관람료** VIP석 16만원 / R석 13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뮤지컬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는 대프니 듀 모리에가 쓴 소설 <레베카>에서 영감을 얻어 뮤지컬 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만든 작품이다. 반전의 스토리와 음악 그리고 유준상, 오만석, 옥주현의 탄탄한 연기가 기대되는 공연. **일시** 1월 12일 ~ 2013년 3월 31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6391-6333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뮤지컬 <어쌔신>



뮤지컬 <어쌔신>은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로,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강한 캐릭터, 음악적 예술성까지 가미된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 황정민이 연출과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일시** 2월 3일까지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02-744-4033 **관람료** VIP석 8만원 / R석 6만원 / S석 4만원

뮤지컬 <리걸리 블론드>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가 더욱 화려하고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된 무대, <리걸리 블론드>로 재탄생했다. 소녀시대 멤버인 제시카, <응답하라 1997>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에이핑크의 정은지, 뮤지컬계의 아이돌 최우리가 세 가지 색깔의 '엘 우즈'를 선보인다. **일시** 3월 17일까지 **장소** 코엑스아트ium 현대아트홀 **문의** 02-736-8289 **관람료** VIP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뮤지컬 <심야식당>



만화 <심야식당>이 한국에서 뮤지컬로 초연된다. 자신만의 사연이 담긴 음식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심야식당>.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줄 행복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뮤지컬 <심야식당>을 기대해 볼 것. **일시** 2월 17일까지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마스터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콘서트 |

영혼을 사로잡는 황홀한 울림 <엘렌 그리모리> 피아노 리사이틀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가 내한한다. 베토벤, 슈만,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그녀의 팔색조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엘렌 그리모는 한 단어나 문장으로 축약되지 않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팔색조의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다. 여성 피아니스트로서는 보기 드물게 섬세함과 강력한 연주 스타일을 두루 갖춘 뮤지션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음악 외에도 1999년 뉴욕의 공연에서 우연히 만난 극대에게서 위로를 받아 극대보호센터 설립하고, <아생의 변주>와 <특별 수업> 두 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녀의 이런 지적인 면모들이 음악적인 활동과 어우러져 연주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1987년 거장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에 의해 발탁된 이후, 쿠르트 마주어,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예사 페가 살로넨 등 여러 거장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2002년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의 전속 연주자로 발탁되었으며, 이후 발매한 음반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스타 연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소나타, 베르크 소나타, 리스트 소나타, 버트르 루마니안 민속 무곡 등 2010년 발매하였던 음반 <레조넌스>의 수록곡들을 모두 연주한다.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음악가들의 작품에 흐르는 공통점과 대부분이 소나타인 각 곡에서 주제가 어떻게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엘렌 그리모의 독특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 1월 29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문의** 1577-5266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시카고 심포니 & 리카르도 무티



시카고 심포니는 120여 년의 역사와 62회의 그래미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이다. 첫 내한 공연으로, 오케스트라 중심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2월 6일~7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36만원 / S석 28만원 / A석 20만원 / B석 13만원 / C석 7만원 / 휠체어 S석 28만원 / 휠체어 A석 20만원

올림푸스앙상블 콘서트 시리즈



올림푸스앙상블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클래식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그 재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단되었다. 대한민국 클래식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권혁주 등 올림푸스앙상블 멤버들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18일, 2월 13일 **장소** 올림푸스홀 **문의** 02-6255-3270 **관람료** R석 5만 5,000원 / S석 4만 4,000원

서울시향 <마스터피스 시리즈>



서울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만남. 위풍당당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황제' 협주곡, 의지의 극한을 추구했던 베토벤의 정신성을 그대로 육화시킨 5번 교향곡이 연주 될 예정. **일시** 1월 18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88-1210 **관람료**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 3만원 / C석 1만원

브라운아이드소울 콘서트 <SOUL PLAY>



남성 중창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콘서트를 연다. 티비프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거듭난 정엽과 라이오넬 리치와의 듀엣으로 화제가 된 영준 등 4명의 멤버가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 준다. **일시** 2월 15일~16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문의** 1544-6399 **관람료** VIP석 13만 2,000원 / R석 12만 1,000원 / S석 9만 9,000원 / A석 8만 8,000원

풍경을 키워드로 본 현대 미술의 다양성 〈불가능한 풍경〉전

현대 작가 14명이 바라본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풍경전은 '풍경'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현대 미술의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 인식의 불가능성 혹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할 것이다.



초상과 더불어 미술사의 가장 오래된 장르인 '풍경'은 자연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한 시대와 개인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오늘날 현대 미술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풍경에 대한 인식은 '차경(借景)' 즉 펼쳐진 공간 속의 광경을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별하여 편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강홍구, 공성훈,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김동연, 김범, 김소라, 김홍주, 문범, 오용석, 이기봉, 이불 등 세대와 경향을 달리하는 14명의 작가들은 '풍경에 대한 사유'라는 주제만을 공유할 뿐, 재현에서부터 개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현대 미술의 다양한 유흥성을 보여 준다. 이불은 사실주의 재현 기법을 이용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술가에 의해 선별되고 편집되는 역설적인 거짓임을 보여 준다. 20세기 근대사 속 건축, 인물, 사건들에서 차용한 풍경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기억의 파편들로 재구성된 작가만의 새로운 서사를 제시한다. 김나영, 그레고리 마스는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매혹적인 현대 도시의 풍경은 삶이 삭제되고 텍스트로 남은 허구적인 공간임을 말하며 아크릴 페인팅으로 풍경을 새롭게 구성해 보여 준다.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현대 미술의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현실 인식의 불가능성 혹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할 것이다.

일시 2월 3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플러토 **문의** 1577-7595 **관람료** 일반 3,000원/ 초·중·고생 2,000원

바티칸 박물관전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



르네상스 시대 미술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이번 전시는 르네상스기의 3대 천재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작품을 포함한 바티칸 박물관의 회화, 장식 미술 등 다양한 미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일시** 3월 31일까지 **장소** 한가람미술관 **문의** 1544-8755 **관람료** 성인 1만 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

〈아니시 카푸어〉전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작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국의 현대 미술가 아니시 카푸어의 전시가 열린다. 초기의 안료 작업과 조각 내부의 빈 공간을 새롭게 인식시켜 준 보이드(Void) 작업을 포함해 최근작 붉은 왁스 시리즈 등 총 18점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27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문의** 02-2014-6900 **관람료** 일반 8,000원/ 청소년, 경로 우대, 장애인, 국가 유공자 5,000원/ 데이 패스 1만 4,000원

임충섭 개인전 〈임충섭: 달, 그리고 월인천지〉



한국 설치미술의 선구자 임충섭의 현대 미술을 총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해외 진출 1세대 한국 작가 임충섭의 시대별 주요 작품과 함께 미공개 작품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작업한 대규모 설치, 미디어 복합 작품 〈월인천지〉까지 총 70여 점이 공개된다. **일시** 2월 24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2기획전시실 **문의** 02-2188-6000 **관람료** 3,000원

박노해 시인 티베트 사진전 〈남김 없이 피고 지고〉



〈노동의 새벽〉의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의 사진전이 열린다. 시인이 직접 그 땅을 밟으며 바라보고 느낀 티베트를 만날 수 있다. 물질의 결핍 속에서도 매일의 기도과 순례로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시** 2월 27일까지 **장소** 라 카페 갤러리 **문의** 02-379-1975 **관람료** 무료

먹을거리 속에 깃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EBS 천년의 밥상〉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은 그릇일 뿐 아니라, 문화적인 파장이 가장 강한 매개체다. 〈EBS 천년의 밥상〉 시공을 초월하여 천 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며, 세계인과 소통하게 한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때 특별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음식은 무엇일까? 고구려 고국천왕의 비었던 우황후가 남편이 죽자 시동생 연우와 재혼하여 다시금 황후의 자리를 지켜 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은 무엇일까? 조선 16대 왕 인조가 피난길에 맞보고 절미(絶味, 매우 뛰어난 맛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즐겨 먹는 비빔밥은 어떤 연유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빨간 김치는 언제부터 만들어 먹게 되었을까? 한류 바람을 타고 새로운 건강식으로 떠오르는 한식, 그 속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네 음식에 담긴 그 속 깊은 사연을 정작 한국 사람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EBS 천년의 밥상〉은 반만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네 먹을거리에 담긴 사연을 일노라면 때로는 마음이 아려 오고, 때로는 선조들의 호방한 기상에 가슴이 벅차기도 한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던 우리 곁에 있던 음식 속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EBS 천년의 밥상〉은 오천년이란 시간에 깃든 우리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음식으로 비벼내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음식을 통해 한국사를 새롭게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맛'과 '맛'과 '살'을 오롯이 맛볼 수 있다.

지은이 오한샘, 최유진 **출판사** MID **사진** 이은숙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를 만나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17년 연속 예일대 최고의 명강의 '죽음(death)'이 책으로 나왔다. 하버드대 '정의(justice)' 및 '행복(happiness)'과 함께 아이비리그(Ivy League) 3대 명강의로 불리는 강이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심리적 믿음과 종교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이성의 측면에서 죽음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지은이 셸리 케이건 **출판사** 엘도라도

소설가 황석영, 등단 50주년 신작 장편 소설 〈어울물 소리〉



등단 50주년을 맞이한 소설가 황석영이 장편 소설 〈어울물 소리〉로 독자들을 찾는다. 서구 열강의 침략과 썩은 정치 아래서 봉건적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던 19세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꾼 '이신통'의 일생을 좇는 내용으로 동화와 증산도, 이야기꾼이라는 존재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지은이 황석영 **출판사** 자음과 모음

삶의 여정을 충만하게 만들어 줄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책. 끝없이 성장하는 어른들에 대한 자자의 연구와 고찰이 녹아있다. 이기는 태도, 최고의 습관, 건강관리 등 인생을 생동감 있고 의미 있게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결을 공개한다.

지은이 도티 빌링턴 **출판사** 작은 씨앗

공자, 여자 인생에 답하다 〈여자를 위한 논어〉



〈논어〉는 2천 년에 걸쳐 내려온 살아가는 이치와 사물을 보는 견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혜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고전이다. 남성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논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등, 공자의 가르침이 빠르게 담겨 있는 여성을 위한 인생 지침서.

지은이 유키 아라이 **출판사** 아이콘북스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아이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거장 팀 라이스의 협연이 돋보이는 뮤지컬 <아이다>의 공연 관람권을 설화수 독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아이다>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일정 2월 중순~2월 하순
공연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공연티켓 R석 6장 (1인 2매)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아이다>는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 상(賞)인 토니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고대 아프리카 북동부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장군 라다메스의 러브 스토리이다. 이집트가 인근의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혼란스럽던 시기에 펼쳐지는 운명적이고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인 <아이다>. 전설적인 옛 이야기를 토대로 하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인종차별이 남아 있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뮤지컬 <아이다>가 주목받는 이유는 팝의 거장인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거장 팀 라이스가 만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장대한 스케일에 맞게 흑인 음악, 록큰롤, 가스펠, 발라드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사용해 클래식한 스토리의 <아이다>에 현대적인 빛깔의 옷을 입혔다. 아프리카의 정통 춤과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춤의 믹스매치도 <아이다>를 보는 즐거움 중 하나다. 특히 'Another Pyramid'의 댄스는 안무, 음악, 의상, 조명의 '합작'을 보여 주는 안무로, 남성들의 각지고 섹시한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를 강인하게 표현하여 <아이다>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2005년 초연된 이후 한국 최초로 브로드웨이 공연의 무대, 의상, 오토메이션 시

스템을 100% 공수, 브로드웨이 최첨단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무대 예술을 선사한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파워풀한 가창력의 가수 쏘냐와 차지연이 아이다로 캐스팅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갈린 연출과 브로드웨이 스태프, 거침없는 기량의 배우들이 선보이는 뮤지컬 <아이다>는 4월 28일까지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S

에디터 문비송 도움 주신 곳 신시컴퍼니(02-577-1987)



제4회 설레임 <나눔>전

한국 전통문화를 후원하는 문화 메세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설화수의 아름다운 행보.



우리 땅에서 자란 최고의 재료를 통해 한국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설화수의 마음은 우리 땅에서 움튼 전통문화를 향한 마음과 닮았다. 2003년 시작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시작으로 '설화문화의 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인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의미 있는 작업을 시도하는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설화문화전', 2012년 4회째를 맞은 '설레임전' 후원까지, 아름다움은 내면과 외면에서 함께 나온다는 선조들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다운 행보라 할 수 있다. 그중 설레임전은 북촌문화센터 내 공예 전문 아트숍인 북촌상회가 주관하는 연말 문화 행사로 전통 공예와 예술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전통의 것을 모티프로 하는 여러 작가들의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여 왔다.

제4회 '설레임 <나눔>전'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갤러리에서 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나눔을 주제로 삼은 전시인 만큼 관람료를 받지 않았고, 오프닝 행사에서는 지화 공예로 만든 매화꽃을 관람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예부터 왕실에서는 '살아 있는 것은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꽃을 꺾지 않고 지화 공예로 만든 꽃을 나누어 주었다고, 북촌상회의 최문영 대표의 전시회 소개와 함께 참여 작가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사랑, 화합, 길한 기운을 담은 한국 전통 색상 '오방색'과 나눔을

상징하는 '새'를 담은 설화수 윤조에센스 '나눔리미티드' 패키지를 협업한 섬유공예가 박유진 은 고대 해양 문화를 상징하는 물고기 '마하니'를 수놓은 바구니 보자기를 출품해 나눔 전시회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전통 문양을 모티프로 다양한 패브릭 작품을 선보인 시선, 고급스러운 모란 콘솔을 출품한 강은명, 오설록의 티들과 조화를 이룬 꽃그림 작가 백은하의 서정적인 일러스트 등 제각기 다르게 해석한 '전통'과 '설화수'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S



설화수 실란, 세계인을 사로잡은 K뷰티의 중심에 서다



가장 한국적인 뷰티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141개 매장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는 설화수의 광휘가 미국 전역을 매료시키고 있다.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 특별 에디션 5종이 럭셔리 뷰티 아이템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의 명품 백화점 니먼마커스의 2012 연말 선물로 낙점되며, 설화수가 K뷰티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은 2003년 출시된 이래 매년 한국 전통의 미적 소재를 발굴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고 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한국미의 본질을 우리 고유의 화장 문화에 담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성분과 사용감은 물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 무늬인 격자와 와당에서부터 모란, 매화, 떨잠 등 한국적이면서 여성스러운 상징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마다 고혹적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 덕분에 컬렉션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슬쩍 꺼내 자랑하고 싶은 제품으로 꼽힌다. 더 주목할 점은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이 선보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해 지난 연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품 백화점 니먼마커스(Neiman Marcus)에서 연말 선물 아이템으로 소개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전 세계에 141개의 매장을 열고 해외 각국의 아름다운 여성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설화수는 지난 2010년 입점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 최고급 백화점인 버그도프 굿맨에 입점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서 저력과 가치가 인정받았다. 그리고 2년 뒤 실란 메이크업이 니먼마커스 매장에 입점한 데는 2011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진행된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 행사에서의 인연이 작용했다. 실란 메이크업은 한국 여인들이 지닌 진귀한 패물 같다는 평가와 함께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실란에 큰 관심을 보인 버그도프 굿맨 바이어의 제안으로 니먼마커스 매장에서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의 쇼핑 중심지인 유니언 스퀘어에 연말 분위기가 한창일 때 니먼마커스 1층 한복판에 '할리데이 뷰티 기프트'를 주제로 한 스페셜 부스가 마련되고, 그 가운데 설화수가 있었다. 니먼마커스의 뷰티 바이어가 설화수의 실란 팩트를 뷰티 트렌드세터들에게 제안하는 머스트 기프트 아이템으로 꼽았을 정도로 설화수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

스페셜 부스 바로 뒤에 자리한 설화수 매장에서는 니먼마커스 바이어가 특별히 선정한 5종의 실란 팩트를 소개했으며, 이들 제품은 미국 전역의 니먼마커스 42개 매장과 온라인몰을 통해서 한정 판매되었다. 격자(2003), 와당(2004), 칠보(2005), 매화(2008), 매화문 꽃살(2010) 등 5가지 실란 팩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적 소재에서 따온 디자인과 색채, 향기로 니먼마커스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단아하고 기품 있는 한국미를 전파하며 문화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류 열풍이 강세인 지금, 전 세계 여성들은 스크린 속의 한류 스타, 혹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 여성의 리얼 뷰티 시크릿에 관심이 많으며, 다소 낯설 수 있는 동양의 뷰티 아이템을 시도해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실제로 니먼마커스의 설화수 매장을 찾은 에이미라는 고객은 "알고 지내는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를 보면서 평소 어떤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며, 어떻게 케어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는 한국 여성들의 뷰티 습관과 철학, 그리고

한국산 천연 성분을 이용한 케어법을 알아내고 싶더라고요. 니먼마커스에서 한국의 명품 화장품 설화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곳에 종종 들러 그 힌트를 얻어 가곤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의 여성들이 알고 싶어하는 뷰티 케어법은 한국 전통의 미용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그 연구 결과를 제품에 담아내고 있는 설화수의 뷰티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한국의 명품에서 세계 속의 명품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S





page 24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Every January in the lunar calendar, our Korean ancestors carried artifacts to pray for the five good lucks for happiness, and shared food for their well-being throughout the year. They kept their hair and clothes clean and neat and shared food and encouragement for everyone's happiness and prosperity. Let's share the story of courtesy, wisdom, and beauty behind the New Year's rituals of our Korean ancestors.



page 36 | **See the Detail**

<See the Detail> is the story of Korea's beautiful landscapes as told by a documentary photographer. Let's find the premium spaces created by the Joseon Dynasty and carefully observe the Korean aesthetics as new and powerful images. The first subject of observation is the palaces built for the Joseon Dynasty. Let's travel to Gyeongbokgung and Deoksugung,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a photographer.



page 50 |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introduces the philosophies of brands that have created world-class design heritages. Listen to the story of their timeless tradition that made their brand philosophies cultural heritages. This issue introduces Saint-Louis Crystal, which is permanently exhibited at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Curtis Art Museum, and Decorative Arts Museum in Paris. Share the brand philosophy of Saint Louis, which was created by 400-year master minds.



page 56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the <Tim Burton Exhibition> being held at Seoul Museum of Art. This exhibition presents about 700 pieces, including the acclaimed film director's personal collections and artifacts related to his famous movies: <Edward Scissorhands>, <Batman>, an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visitors will be able to see the magical power of Tim Burton, who is beloved for his radical imagination and original stories.

page 60 | **Meet the Artist**

<Meet the Artist> introduces young artists who have come to be widely loved in South Korea and abroad by creating modern artworks that reinterpret Korea's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This issue introduces JiHoon Ha, who is currently teaching at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and who is recognized across Asia and Europe for his artistic furniture. He presents Korean furniture that never goes out of style as Danish furniture.



page 66 | **The Thesaurus of Sulwha**

<The Thesaurus of Sulwha> is the story of the ingredients in Sulwhasoo products that integrate the essence of traditional Korean herbal science. Sulwhasoo contains ingredients such as ginseng, pine needles, soy, and mugwort. The Thesaurus discusses the combin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beauty where the precious ingredients of Sulwhasoo are ingested through food art and applied through cosmetics. This issue explores the beneficial effects of ginseng, the most basic essence of Sulwhasoo ingredients, on beauty and internal health.



page 76 | **Trip of Korean Music**

<Trip of Korean Music> - the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This issue takes us to Jindo, the home of Jindo Arirang, with the typical style of the folk songs of Namdo. Watch the performance of Jindo National Gugak Center and listen to Jindo Arirang through the interview of a local master.



page 82 | **Sulloclawon(雪綠茶園)**

<Sullocl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Samdayeon, the post-fermented tea with added depth and value to its taste and flavor by being matured in Jeju cedar barrels. Let's hear the story of our Korean ancestors' tea tables that carefully considered tea, people, and spirit over a cup of tea.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2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1월 31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아이다>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3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10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해 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첫 단계에서 바른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부여해 다음 단계의 흡수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아이다> 관람권 3명

팝의 가장 엘튼 존의 음악이 돋보이는 뮤지컬 <아이다>의 공연 관람권 6장(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2월 중순~2월 하순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90페이지 참조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고승우** 제주시 연동
- 금윤진** 경기 과천시 별양동 17
- 김혜선** 광주 북구 임동
- 문은미** 인천 부평구 산곡4동
- 박영희** 강원 춘천시 퇴계동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